



S-OIL 리더의 일하는 방식

직원의 모든 보고에 발전적인 피드백 보내기

모바일기기로 QR코드를 찍으면
움직이는 표지와 관련 내용을
연락할 수 있습니다.



S-OIL 리더의 일하는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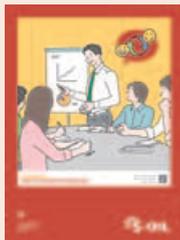
- **WORK EFFICIENCY**
WORK & LIFE BALANCE
업무 지시는 6하 원칙에 의거 명확하게 한다.
직급별 순차 대면 보고보다 이메일을 통한 동시 보고를 적극 실행한다.
사전에 약속된 미팅 시간을 준수하고, 비정기 회의는 최소화 한다.
- **OPENNESS**
CREATIVITY
직원이 먼저 말하게 하고, 끝까지 경청한다.
새로운 제안에 대해 적극 칭찬한다.
회의 시 모든 참여자가 자유롭게 의견을 말하도록 보장한다.
- **MUTUAL RESPECT**
HORIZONTAL CULTURE
직급과 나이에 상관없이 예의 갖추어 배려한다.
보고의 긍정적인 부분을 먼저 이야기한 뒤 보완을 요청한다.
직원에게 주어진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인 지시를 하지 않는다.
- **EMPOWERMENT**
CULTIVATION
책임과 권한을 위임하고, 중간점검과 코칭을 통해 실행을 돕는다.
직원의 모든 보고에 발전적인 피드백을 보내준다.
직원의 직무순환을 적극적으로 실시한다.



DECEMBER
2019

VOL. 457

COVER STORY



EMPOWERMENT CULTIVATION

직원의 모든 보고에 발전적인 피드백 보내기

하버드대학 심리학자 맥클렌드 교수는 성취욕구가 강한 사람일수록 피드백을 잘 수용한다고 말합니다. 피드백은 자율과 타율을 모두 존중하는 육성법으로 자신과 조직의 성장·성과 창출을 위해 꼭 필요한 거울입니다. 리더의 발전적인 피드백은 직원의 현재 상황을 확실히 알려주고 장래 행동 계획을 만들어줍니다. 신뢰감 확보·사실 통지·문제 행동 이해시키기·재정비 지원·기대 통지 등 5단계를 통해 발전적 피드백을 줄 수 있습니다.



변화하는 우리

04 핵심가치 히어로

[협력] 빈재영 사우(IT운영팀)

06 고전 속 핵심가치

[나눔] 여민동락
덕을 나누는 리더십

08 달리는 희망 주유소

은혜주유소

10 가족 추억공작소

유금현 사우(아로마틱생산1과) 가족

12 달콤한 퇴근길

[자동차 정비] 구은일 사우(FCC2과)

14 함께하는 풍경

- 공장 가족체육대회
- 다이내믹 루키 프로그램
- SC&D 프로젝트 사우디아람코 합동 워크숍
- ACT 엔지니어 프로그램 교육
- 직영주유소 현장 화재 대응 훈련
- 일본 유탄기유 고객 초청 콘퍼런스

22 두런두런 이야기방

- 산악회 정기산행기
- 중국 계림 여행기
- 농작물 재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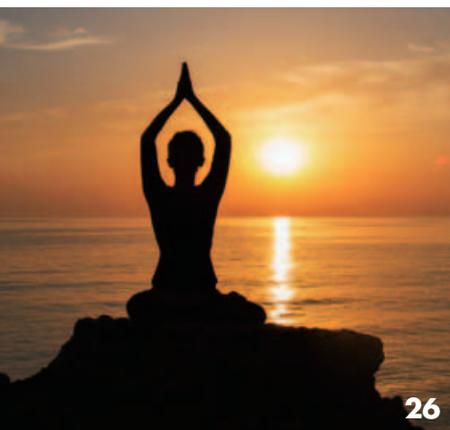
08



10



12



26



30



함께 보는 세상

- 26** 꽃청춘 수학여행
12박13일 나를 찾는 여정
[인도 명상기행]
- 30** 마을숲을 걷다
아늑한 품, 격 다른 안식처
[경남 고성 장산숲·동산숲]
- 34** 성장달력
나다움의 화술
[표현력 기르기]
- 36** 취미탐구생활
[관계투자형] 취미 정보
- 38** 이달의 활력평가
12월 탐구영역 [연말]
- 40** 캔버스 연구실
기후 표현한 과학적 색채 & 피테르 브뤼헬
<겨울 : 눈 속의 사냥꾼들>



성장의 S-OIL

- 42** 주요 경영활동
 - 사랑의 연탄나눔
 - 사랑의 김정나눔
 - 올해의 시민영웅 시상
- 45** 단신
 - 선배 임원의 날 행사
 - '대한민국 안전대상' 인천저유소 소방청장 표창
 - 공상 해양경찰·소방관 치료비 전달
 - 사회공헌워크 서울시장 표창
 - '한국의 경영대상' 3년 연속 브랜드경영부문 종합대상
 - 협력업체 대상 구매 설명회
- 48** 햇살나눔
 - HYC공장봉사단 어르신 동행 태화강 나들이
- 49** 임직원 동정
- 50** 독자마당

[Super Saver] 표창자
빈재영 사우(IT운영팀)

진중한 협력의 균형추



예리함으로 끌어낸 협상 결실

기업 내 모든 시스템 관리를 총괄하며 가장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업무관리 전략을 기술적으로 제시하는 곳이 바로 IT운영팀이다. 오류 없는 유지보수가 생명과도 같은 IT운영팀에서 비용지출의 모순을 발견하고 적극적인 해결에 나선 빈재영 사우는 탁월한 업무 수행력으로 올해 초 Super Saver 부문 표창자에 선정됐다. 특히 우리회사 시스템 유지보수 비용을 절감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팀원들과 함께 성과를 만들어 냈다. 절감 대상이 된 시스템은 많은 기업이 회사 업무를 체계적으로 운영·관리하는 데 사용하는 것으로서 우리회사는 2000년 초·중반부터 해당 시스템으로 전환해 운영 중이다.

“몇 해 전부터 전사적으로 모든 비용을 재검토 하자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저희 팀도 예외는 아니었죠. 시스템이란 본래 초기 구축 때보다 업데이트 등 유지보수에 더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반드시 검토해야 할 부분이었습니다.”

기존에 우리회사는 계약상 소프트웨어 구매비용의 20%가 넘는 유지보수 비용을 해마다 소프트웨어 회사에 지불해왔다. 소프트웨어 판매 회사는 기업의 구매 규모에 따라 유지보수 효율을 차등 적용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상대적으로 비싼 유지보

수 비용을 지불하는 상황이었다.

“여러 방법을 알아보면 중 사우디아람코는 우리보다 낮은 요율을 적용 받고 있음을 알게 됐습니다. 아람코의 자회사로서 요율을 낮추는 방안으로 협상을 요청했죠. 우리의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자산을 사우디아람코로 이관하면 해결 가능했습니다.”

빈재영 사우는 사우디아람코 외에도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소프트웨어 판매사와 다각적인 협의와 협상을 통해 모두가 손해를 줄이는 방법이라는 점을 설득했다. 한국의 소프트웨어 판매사는 이례적이지만 우리회사의 요율을 낮춰 적용하기로 결정하면서 빈재영 사위의 1년 6개월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

협력은 변화의 동력

“협상에 대한 아이디어는 당연히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었죠. 팀원 모두와 머리를 맞대며 중지를 모았기 때문에 돌파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빈재영 사우는 모든 공을 팀원에게 돌린다. IT 운영팀 업무 자체가 여러 사람을 상대하고 다양한 의견을 종합해 많은 사람들이 만족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고 이를 유지하는 것이라 설명하는 빈재영 사우는 협력을 우선 가치로 꼽는다.

“요즘 업무 자체가 혼자 할 수 있는 부분은 많지 않아요. 대부분 타부서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합니다. 바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순환시키는 방법도 협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해 각 현업에 안착시켜 안정적으로 유지되게 하려면 현장의 적극적 참여와 협조도 필수다. 이 역시 또 다른 협력이다. 물론 시스템 변화로 업무 환경이 바뀌면 다

시 새로운 형태로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불편함을 기꺼이 감수해야 진정한 디지털화를 완성할 수 있다고 말한다. IT 운영팀은 그런 의미에서 변화를 원활히 이끌어내는 중도자다.

“엑셀로 주로 데이터를 관리하던 과거에 비하면 변화에 대한 저항이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세대가 달라졌죠. 워낙 빨리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시대이기도 하고요.”

빈재영 사우는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모든 시스템이 비용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경제적 요건과 직원 요구의 적정선을 찾는 데 신경을 기한다. 부하직원뿐 아니라 타부서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이는 이유다.

안주 대신 도전

빈재영 사우는 현재 인사업무 시스템을 ERP(전자자원관리)로 바꾸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복잡하고 까다로운 분야인 만큼 매 과정마다 예리하게 분석하고 신중히 예측한다. 한 때 디지털 전환이 마케팅 분야에서 전략적 용어로 사용됐다면 이제는 본격적인 실행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기업 내 다양한 업무 파트가 시스템화 되는 것도 시대의 변화를 보여준다. 빈재영 사우는 빠른 변화의 속도만큼 현재에 그저 안주할 수만은 없다.

“공장생산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장 파이프라인 센서에



협력은 바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순환시키는 방법입니다

서 흘러나오는 정보를 받아 평소 데이터와 비교해 문제점을 찾아 예측하는 것도 한 사례죠. 혁신적인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무수히 쏟아지고 있지만 사실 걸음마 단계인 것도 많습니다. 먼 훗날일 것이라 단정하기보다 그때를 대비해 기본부터 탄탄히 구축해나가려 합니다.” 빈재영 사위의 현재가 최선의 반복이라면 그의 열정은 끊임없이 내일을 향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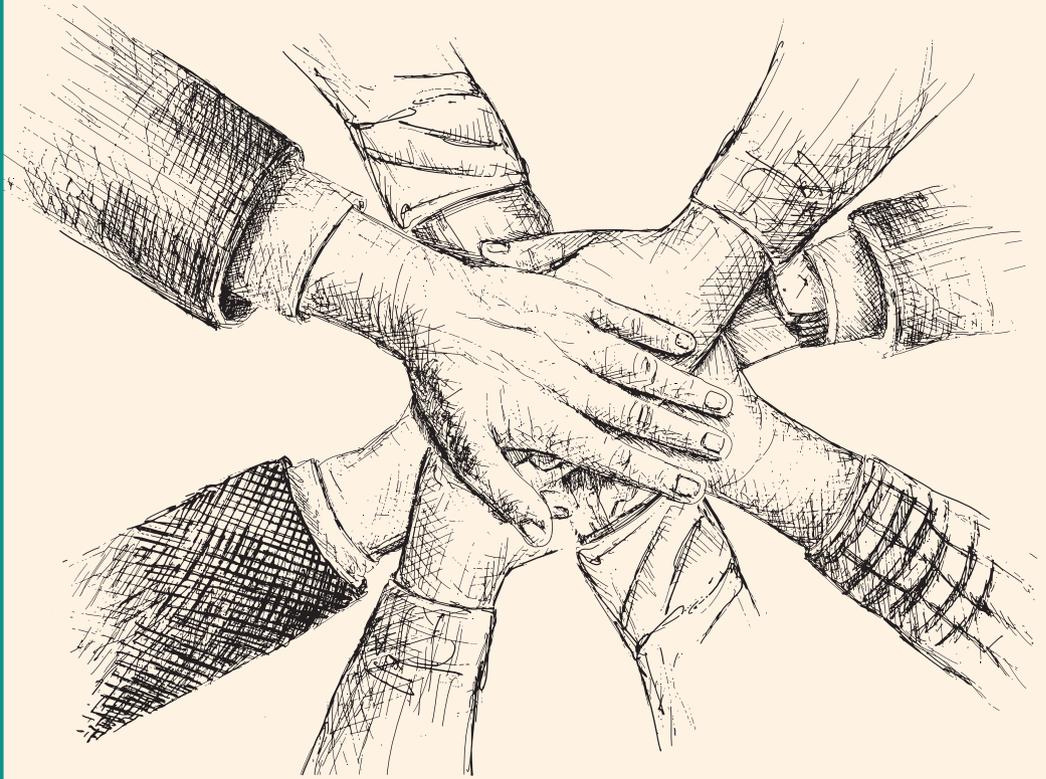
주요 공적

- ▶ 시스템 운영 개선 위해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
- ▶ 관계사들과 탁월한 협의점 찾아 문제 해결
- ▶ 시스템 유지보수 비용 절감에 기여



여 민 애 락 與 民 同 樂

덕을 나누는 리더십



핵심가치 [나눔] 편

현명한 리더의 요건

세상은 수많은 '나'가 모여 '우리'를 이루며 사는 곳이다. 홀로 즐거움을 독차지하려 한다면 관계는 금세 깨지고 만다. 특히 가정이든 단체든 한 사회든 조직을 영향력을 가진 이들은 주변 사람들과 즐거움을 나누는 미덕을 갖춰야 한다. 맹자는 양나라 혜왕에게 백성과 함께 즐거움을 나누는 여민동락(與民同樂)의 정신을 강조했다.

“만일 왕께서 음악을 연주하실 때 백성이 그 소리를 듣고는 ‘어찌 임금만 우리를 이런 곤궁한 지경에 이르게 하여 부자(父子) 간에 서로 보지 못하며 형제가 흩어지게 하는가’라고 불평한다면 이는 백성들과 즐거움을 함께 나누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백성이 연주 소리를 듣고는 모두 싱글벙글 기쁜 낯빛을 띠며 ‘우리 임금이 질병이 없으시구나. 어찌 저리 연주를 잘하실까’라고 한다면, 백성과 즐거움을 함께 나누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왕께서 백성과 즐거움을 함께 하신다면 왕 노릇을 하실 수 있습니다.”

왕이 백성과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것, 이를 여민동락(與民同樂)이라고 한다. 정조는 이 의미에 대해 ‘백성과 좋은 것과 나쁜 것을 함께하고 그 이익을 독차지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풀이했다.

독락(獨樂) 아닌 동락(同樂)으로

우리 역사에서 여민동락의 정신을 잘 보여준 대표적인 인물이 세종대왕이다. 세종은 임금에 오르고 나서 해마다 가뭄을 겪어야 했다. 수많은 백성이 굶주림을 이기지 못해 굶어 죽거나 흙을 파서 떡과 죽을 만들어 먹었다. 세종은 경회루 동쪽에 작고 허름한 초가를 지어 자신의 집무실로 삼았다. 그리곤 따뜻하고 넓은 침대에서 자는 대신 초가에서 잠을 자며 업무를 봤다. 신하들이 왕의 건강을 염려해 초가집 바닥에 몰래 짚더미를 놓자 세종이 크게 꾸짖으며 자신의 허락 없이는 일체의 물건도 들이지 못하도록 명령했다. 농사 형편을 알기 위해 직접 궁궐 밖으로 나가 농사가 잘 되지 못한 곳에서는 농부에게 그 까닭을 물으며 점심을 먹지 않은 채 궁궐로 돌아왔다. 그렇게 궐 안의 초가에서 2년 동안 머물며 백성들과 가장 가까운 곳으로 달려가 고통을 함께 나눴다. 그 결과 세종 시절에 이르러 나라의 국운이 퍼지기 시작했고 백성의 살림은 넉넉해졌으며 인구가 크게 증가했다.

조선후기 실학자인 연암 박지원은 여민독락에 대해 혼자 즐기는 독락(獨樂)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즐기는 중락(衆樂)으로 나아가라고 권면했다. 진정한 나눔은 독락(獨樂)을 넘어 동락(同樂)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여민동락의 정신은 리더 한 사람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다. 경제·사회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업에도 적용된다. 기업시민이라는 표현처럼 기업이 한 구성원으로서 바른 가치를 창출하고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활동을 온전히 펼쳐나간다면 사회 전반적인 생태계를 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다. 🌱



글. 박수밀
한양대 인문과학대학
연구교수로 재직 중이며
<리더의 말공부>
<연암 박지원의 글 짓는 법>
<옛 공부법레들의 좌우명> 등
저서가 있다.



핵심가치 [나눔]을 되새기며
필사로 사자성어를 익혀보세요!

여민동락 덕을 나누는 리더십



與民同樂 與民同樂
與民同樂 與民同樂
與民同樂 與民同樂



은혜주유소

본래 건축업에 종사하던 김기선 대표는 넓은 주유소가 있는 땅을 매입하면서 주유소 대표라는 두 번째 직업을 갖게 됐다. 주유소 운영에 관한 지식이 전무한 상황에서 최고가 아니면 안 된다는 신념을 굳건히 실행으로 옮겨나갔다.

고객 먼저 알아채는 정성

청결 제일 고객 만족 리모델링

고객에게 최고의 시설, 만족도 높은 서비스만을 제공하겠다는 김기선 대표의 확고한 의지는 주유소 설립 당시 제대로 통했다. 지난 9월 문을 연 은혜주유소는 2개월 만에 같은 자리에 있던 기존 주유소 대비 2배의 판매량을 올렸다. 하지만 처음 주유소 운영 제안을 받았을 때만 해도 김 대표는 기대보다 걱정이 앞섰다. 본업이 따로 있는데다 주유소에 관해서는 아는 게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 김 대표를 설득한 것은 김성록(목포지사) 사우다. 주유소 운영에 확신 없던 김 대표에게 든든한 조력자

왼쪽부터
김기선 대표
아내 변영아씨
이태현 판매원





은혜주유소

전남 무안군 무안읍 무안로 332
061-454-1100



로서 지금의 성과를 이루는 데 힘을 보냈다. 은혜주유소에서 단연 눈에 띄는 것은 정갈하고 깔끔한 시설이다. 김기선 대표의 전공분야인 건축업 노하우를 모두 쏟아부어 직접 리모델링 공사에 나선 결과다. 주유소 구석구석 김 대표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다.

“저도 운전하는 입장에서 깨끗한 주유소에서 주유하면 기분이 좋더라고요. 주유소 화장실만 해도 비위생적으로 방치된 곳이 많잖아요. 우리는 청결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더불어 주유소 옥외광고도 진행했다. 물론 현수막과 안내판도 김 대표의 솜씨다. 덕분에 다소 인적이 드문 입지적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기꺼이 은혜주유소를 찾았다. 이곳 만큼 깨끗하고 좋은 곳이 없다며 점심시간에 짬을 내 들르거나, 가던 길을 돌아 일부러 찾아오는 단골도 부쩍 늘었다.

입소문 자양분으로 성장가도 정주행

김기선 대표가 자비를 들여 설치한 자동세차기는 은혜주유소의 명물이다. 무안 읍내에 세차기를 구비한 주유소가 거의 없다는 사실에 착안, 다소 과감한 투자를 시도했다. 이제 막 시작하는 주유소에 너무 비싼 세차기를 두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았지만 최고가 아니면 안 된다는 운영 철학을 고집스레 지켰다.

김 대표는 세차기가 있음에도 손세차 서비스에 정성을 다한다. 차가 들어오면 바로 자동 세차를 시작하는 것이 아닌 김 대표가 먼저 초벌 세차를 진행한다. 마지막 훑까지 꼼꼼한 마무리로 고객들의 만족도가 높다.

“좋은 건 고객들이 가장 먼저 알아봅니다. 당장 들이는 돈과 시간은 아까운 게 아니에요. 분명 장기적으로 성과가 나타납니다.”

김 대표의 신념을 입증하듯 은혜주유소는 유독 입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고객이 많다. 부부의 친절함도 한몫한다. 기름을 넣을 때 친근하게 인사를 건네고 주유액에 상관없이 사은품을 증정하는 배려는 기본, 때에 따라 간식이나 찬 한 잔을 대접하기도 한다. 이런 사소한 친절들이 오늘의 은혜주유소를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근 초당대학교 학생들은 김기선 대표와 아내 변영아

씨를 삼촌과 이모라 부르며 은혜주유소의 홍보대사를 자처한다. 은혜주유소 이전부터 같은 자리에서 주유 일을 해온 이태현 판매원도 기존 단골을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이전 주유소를 이용하던 고객이 이태현 판매원 보고 “아직 계시네요”라며 종종 반가운 인사를 건넨다.

진정성 있는 서비스와 정성으로 마련한 시설은 은혜주유소의 성장 동력이자 도약의 발판이다. 건축에서 주유로 본업을 바꿔야 할 정도라며 여유 있는 미소를 지어보이지만 김 대표는 결코 자만하지 않는다.

“이제 첫걸음을 땀을 뺀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주유소로 키우겠습니다. 은혜주유소는 하루하루가 달라요.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입소문 듣고 찾아오는 고객이 실망하지 않도록 책임감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은혜주유소 성공 전략 3

1 청결하고 성능 높은 시설
김기선 대표는 건축 회사를 운영하며 쌓은 노하우를 살려 직접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했다. 또한 무안 읍내에 세차기를 둔 주유소가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고급 자동세차기를 설치, 기존에 있던 낡은 주유소를 2개월 만에 탈바꿈시켰다.

2 신생 주유소는 홍보가 생명
본업으로 현수막 등 옥외광고도 함께 취급해 주유소 개업과 동시에 현수막과 안내판을 제작했다. 적극적인 홍보 활동으로 입지적 불리함을 극복하고 짧은 시간 내 은혜주유소의 지명도를 높였다.

3 인심으로 완성하는 서비스
형식적이고 정형화된 친절에서 벗어나 이웃 같은 편안함과 친근함으로 고객에게 다가간다. 먼저 인사를 건네며 음식이나 음료를 나누는 따뜻한 인심이 은혜주유소 서비스의 핵심이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

유금현 사우(아로마틱생산1과) 가족



2019년은 인생 2막의 출발선

3년여 연애를 마치고 결혼한 뒤 한창 신혼의 단꿈에 빠져있을 때 귀한 생명이 찾아왔다. 이른 나이에 결혼해 신혼을 더 즐기고 싶은 마음이 컸다는 유금현 사우는 부모가 된다는 게 처음에는 두려웠다고 고백한다.

“아내와 한 살 차이라 친구처럼 투닥거리기도 하고 각자 삶을 챙기는 데 바빴죠. 결혼은 했지

만 연애의 연장선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어느 부모들처럼 저희도 아이를 통해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을 맞게 된 거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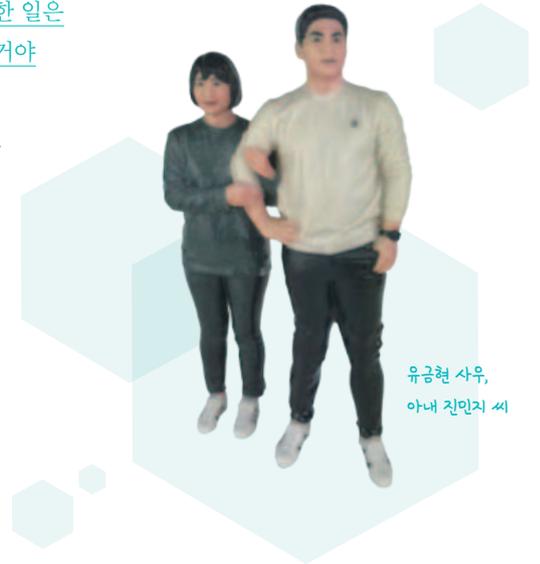
평소 사람들 앞에 나서기를 부끄러워하던 유금현 사우가 먼저 가족촬영을 신청했다는 사실이 아내 진민지 씨는 믿기지 않았다.

“정말 직접 신청했냐고 몇 번을 확인했어요. 남편은 연애할 때 자기 사진도 잘 찍으려 하지 않

생명의 탄생보다 기쁜 날은 없다.
유금현 사우는 올해 인생 최대의
소중한 선물을 얻었다. 부부의
예쁜 이목구비를 쏙 빼닮은
아들 지호 군이 그 주인공이다.
올 한 해 최연소 구성원으로
사우가족촬영 대미를 장식한
유금현 사우 가족의 웃음으로
따뜻한 겨울을 열었다.

엄마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잘 한 일은
우리 지호를 낳은 거야

지금처럼 건강하게
자라주렴



유금현 사우,
아내 진민지 씨

았거든요. 아이뿐만이 아니라 남편이야말로 점
점 아빠로, 든직한 가장으로 성장하는 것 같아
뿌듯해요.”

아내의 칭찬이 민망한지 유금현 사우는 아들
지호 군을 어르며 어색함을 모면한다. 주변 동
료를 통해 가족사진 촬영 후기를 들을 때마다
올해가 가기 전 꼭 참여하고 싶었다는 유금현
사우는 드디어 오랜 바람을 이뤘다.

조각 미남 봉어빵 부자

부부는 지호를 익숙하게 안고 자세를 취한다.
다행히 순하게 앉아있는 지호 덕에 촬영이 순
조롭게 진행됐다. 다른 자세로 바꾸려던 순간,
금세 스튜디오 사물들에 호기심을 보이며 카
메라 앵글 밖으로 나가려는 지호를 부부가 간
신히 붙잡는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다. 엉덩이
를 들썩이는 지호의 시선을 붙잡기 위해 아내
가 가방에서 무언가 열심히 꺼낸다. 딸랑이다.
형형색색 바뀌며 흥겨운 동요가 흘러나오는
딸랑이가 등장하자 지호의 시선도 그제야 한
곳을 향한다.

사진작가의 움직임도 덩달아 바빠진다. 연신
찰칵이는 셔터 소리에 지호가 귀를 쫓긋 세운
다. 아직은 초보부모지만 아들 마음을 바로 알
아차리는神通한 능력은 진즉 생겼다.

“사실 총각 때는 딸에 대한 로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막상 출산일을 기다리다보니 그저 건
강하게 태어나기만을 바라게 되더라고요.”

부부의 바람처럼 건강하게 태어난 지호군은 8
개월에 체중 10kg이 나갈 만큼 우량아로 무럭
무럭 자라고 있다. 서정적인 눈망울이 아빠를
꼭 닮았다는 아내 진민지 씨의 말처럼 지호 군
은 아동모델같은 외모로 사진작가의 감탄을
자아냈다. 모두의 칭찬과 시선을 알아차린 듯
지호 군은 천사같은 미소로 화답한다.

바다처럼 넓은 마음으로

지호 군의 협조로 촬영이 무사히 끝나고 피규
어 촬영만 남았다. 사실 부부가 가장 기대한 시
간이기도 하다. 뜻깊은 2019년을 마무리하며
부부의 행복한 표정을 꼭 피규어로 남기고 싶
었다. 팔짱을 끼고 서로를 다정하게 바라보는
눈빛에서 애정이 듬뿍 묻어난다.

“아내도 육아로 많이 지치고 힘들 텐데 항상 저
를 살뜰히 챙겨요. 사랑한다는 말로는 부족할
만큼 고맙고 미안하고 또 기특합니다. 저만 잘
하면 될 것 같아요.”

남편의 고백에 아내 진민지 씨의 눈시울이 붉
어진다. 부부의 마음을 어루만지듯 지호 군이
맑은 눈망울로 엄마 아빠 얼굴을 번갈아 바라
본다.

“아이의 태명이 해원(海原)이에요. 유치환 시

인의 ‘깃발’이란 시에 나오는데 그 뜻이 마음에
들어 꼭 불러주고 싶었어요.”

아이가 바다같이 넓은 마음으로 세상을 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며 지었다는 태명처럼 부
부는 언제나 서로를 보듬겠다고 약속한다. 🌻



기계의 속마음

자동차 정비

글. 구은일(FCC2과)
사진. 디자인소호



첫사랑 마이카의 추억

아버지 덕분에 자동차 정비는 낯설지 않았다. 아버지께서는 다방면의 상용차들을 능숙하게 운전하셨다. 막연한 동경도 있다. 아버지처럼 기계의 구조와 작동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수월한 손길로 다루면 좋을 것 같았다.

결정적인 계기는 9년 전 찾아왔다. 생애 첫 '마이카'를 샀다. 내 차는 나쁜 아니라 보행자 안전과도 직결된다. 그 정비를 직접 챙기고 싶은 마음은 당연하다. 때마침 차량 점검을 위해 무작위로 택한 정비소에서 '현타(현실자각타임)'가 왔다. 차를 맡긴 그 시간 동안 '과잉 정비로 손해를 보지는 않을까' 의구심이 차올랐다. 아무것도 모른 채 기다리며 생각했다. '내 일은 온전히 내가 책임감 있게 처리해야 한다'는 가치관이 작동했다. 자동차 정비를 알아야 했다.

자차 차량을 두고 손쉬운 부분부터 살폈다. 유탄유나 배터리를 단순 교환하는 일은 어렵지 않다. 좀 더 나아가 램프 교체나 DIY 개념의 사이드 미러 교체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과정을 거쳐 지금은 도어 분해로 표피 가까운 속을 들여다보는 정도다. 자동차 정비의 매력은 만족감에 있다. 고장 난 부분을 내 손으로 바로잡았구나, 안도하는 순간의 보람이다. 문제 해소의 결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고 정상화한 운행 상태를 피부로 느끼니 가능한 경험이다. 알면 알수록 배울 게 많다는 점도 좋다. 매일





자동차 정비 정보상자

OFFLINE

마이스터케이

독일 마이스터 자격증(독일정비기술장인)을 보유한 수리센터다. 울산·부산·포항 지역을 아울러 동호회 연계 활동을 지원한다. 주소 울산시 중구 번영로 612 <http://meister-k.com>

ONLINE

자동차 정비 정보공유

약 20만 명의 회원을 보유한 자동차 정비 온라인 카페다. 정비 관련 서적과 동영상 게시물을 통해 자동차 정비 이해를 돕는다. 국내외 차종별 정비학습에 유용한 팁을 전한다. <https://cafe.naver.com/autowave21>

같이 한 몸으로 달리는 자동차라 배움에도 멈춤이 없다.

처음 성공한 자가 정비는 특히 기억에 남는다. 당시 마이카에는 요즘 차와 달리 로크 폴딩(Lock Folding) 기능이 기본 탑재돼 있지 않았다. 시동을 켜고 때 사이드 미러가 자동으로 접히는 기능이다. 손수 기능을 장착하겠다고 차 문짝을 과감히 뜯어 갖은 노력을 했다. 혼자서는 버거운 차량 정비에 관심이 큰 동기와 머리를 맞대고, 인터넷도 깊이 파고들었다. 문 표면에 흠집이 잔뜩 남았지만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공구의 목직한 매력

과거 차를 정비소에 맡기면서 엄습했던 의구심들이 이제와 적응할 때가 있다. 나중에 알게 된 일이지만 쓸데없이 고무 패킹을 교체한 적도 있었다. 차 수리를 고려할 때 가장 흔하면서도 판단하기 어려운 현상이 떨림(vibration)인데, 당시 차는 엔진룸 내부의 고무 패킹을 바꿀 필요 없이 커버만 제거해도 될 일이었다. 단 몇만 원부터 수백만 원까지 비용이 수반될 수 있는 상황에서 차 정비를 청하는 사람이 대강의 원리만 헤아리고 있어도 분명 유리할 것이다.

자동차 정비의 첫발은 보통 차량 관련 커뮤니티에서 댄다. 차종별 특성이 상이한 만큼 동호회도 자기 차종에 맞춰 선택한다. 동호회와 긴밀히 소통하는 정비소는 주요 정보 창구가 된다. 내 경우 동호회와 연계된 울산 중구의 '마이스터케이'에서 다양한 정보를 접한다. 이곳 김길상 대표님은 독일에서 명장 자격을 획득한 자동차 전문가다. 크고 복잡한 개념부터 미시적인 작동까지 쉽게 설명해 주시기에 배우는 것이 많다. 특히 자동차 정비는 전문 영역이고, 무엇보다 안전을 다룬다. 역량 있는 전문가에 십분의 지혜 지식을 늘려나가야 하는 이유다. 알팍한 정보나 호기심으로 선불리 차에 손대는 것은 엄금할 일이다. 어디까지나 일반 운전자의 자가 정비는 고장 수리에 목적을 두는 게 아니라 사전점검으로 불시의 고장을 예방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자동차 정비 덕분에 일상에서 성취감을 얻고 끊임없이 배우고자 하는 욕구를 자극 받는다. 이보다 더한 기대는 없다. 소박하게 꿈꾸는 것이 있다면 관련 지식을 차곡차곡 쌓아서 폐차 직전의 차를 한 대 분해해보고 싶다. 나만을 위한 차고에 틀어박혀 목직한 공구들과 함께 집중할 그 시간을 상상한다. 🌻



일상에서
성취감을 얻고

끊임없이
배우고자 하는 욕구를
자극 받는다

한마음 한뜻 명랑 운동회

공장 가족체육대회

글. 조형근(대외업무팀)

공장 가족체육대회가 11월 8일 문수 국제양궁장(울산 남구 문수로)에서 개최됐다. 이날 현장에는 후세인 알 카타니 CEO를 비롯해 온산 공장 임직원과 가족 2천여 명이 모여 활기찬 시간을 가졌다. 참가자들은 풍선기둥 쌓기, 줄다리기, 미션릴레이 등 명랑 운동회의 다양한 경기를 통해 우정과 단합을 도모했다. 점심시간에는 'CEO가 만나러 갑니다' 이벤트로 기념사진을 촬영하며 친밀한 시간이 이어졌다. 🌻



맑게 갠 날씨에
임직원과 가족 얼굴도 활짝 피었다.
큰 함성으로 입장한 참가자들은
CEO와 힘을 모아 튜브를 들고
달렸다.



낙산 질주와 줄다리기,
장애물 릴레이 등 안간힘을 쓰는
가운데 폭소가 터져 나오는
경기들로 모두 구슬땀을 흘렸다.





알 카타니 CEO와 함께하는 아기자기한 이벤트가 임직원과 가족의 호응에 불을 붙였다.



활력 넘치는 소통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임직원과 가족의 모습. 핵심가치를 내세워 팀을 나눈 참가자들에게 이날의 진짜 트로피는 빛나는 우정이었다.





신선한 공감 루키들의 이야기

다이내믹 루키 프로그램

글: 박중현(인력개발팀)



다이내믹 루키 프로그램이 11월 29일 경원재 앰배서더 호텔(인천시 연수구 테크노파크로)에서 진행됐다. 입사 2년차 대졸사원들이 참여한 올해 프로그램은 참여자 모두에게 유익한 일정을 통해 뜻깊은 추억을 선사했다. 이 자리에는 후세인 알 카타니 CEO와 21명의 주니어 직원이 함께해 알찬 시간을 이어갔다. 🌱



올해 CEO와의 대화시간은 기존 자유 질의응답과 다른 방식으로 진행됐다. 사전에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의 기사를 통해 주니어 커리어 개발과 방향설정에 관한 글을 숙지한 뒤 발표하는 형식이었다. 홍연정(BigData팀)·정현교(올레핀공정팀) 사우는 자신의 커리어 목표를 발표한 뒤 그 내용을 기초로 모두 함께 커리어 목표 설정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루키들과 마주한 알 카타니 CEO는 현재 자리에 오르기까지 본인의 경험들을 소개했다. 특히 주니어 직원들에게 커리어 개발을 각별히 당부하며 다양하고 많은 경험으로 더 크게 성장할 미래에 대비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박준서(BigData팀) 사위가 직접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가 흥미를 끌었다. 참여자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알 카타니 CEO와 주니어 직원들이 서로를 친밀하게 알아가는 시간으로서 의미가 있었다. 사사로운 소재를 담은 설문 결과는 모두의 웃음과 공감을 자아내며 프로그램에 대한 집중도를 환기했다.



올해로 시행 11년째를 맞이하는 다이내믹 루키 프로그램은 주니어 직원들에게 CEO와 직접적인 소통 기회를 제공하고 동료들과 팀 빌딩 활동을 함께하는 장으로서 기능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젊은 세대의 사기를 고취시키고 회사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을 불어넣어 새로운 업무 활력을 작용하는 데 긍정적인 효과를 얻고 있다.





탄탄한 기초 막강한 실행력

SC&D 프로젝트 사우디아람코 합동 워크숍

글. 최병원(프로젝트관리팀)

SC&D(Steam Cracker & Downstream)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수행을 도모하는 사우디아람코 조인트 벤처 프로젝트 지원 조직(이하 JVPS) 합동 워크숍이 11월 25~26일 본사 대회의실-대강당에서 진행됐다. 이번 워크숍은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실행을 목표로 상호 조직 간 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프로젝트 기본설계(FEED) 단계의 계획과 실행 중 효율적인 지원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관련 분야의 기술 지식을 나누고 선행한 프로젝트들에 기초해 주요 모범사례를 공유했다. 양일간 워크숍에는 SC&D프로젝트본부와 JVPS 각 소속 임직원 총 64명이 참석해 향후 진행될 프로젝트에 굳건한 실행력을 강화해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

워크숍에서는 기본설계 계약을 위시한 전락에서부터 평가와 프로젝트 코스트 범위에 대한 점검, 프로젝트 조직 구성과 인력·자원 관리, 의사결정의 효율화를 실현하는 위원회 운영 등을 다루면서 프로젝트 관리 차원의 실행력을 높일 수 있는 다각도의 제언들을 공유했다. 이를 비롯해 TC2C(Thermal Crude to Chemicals) 프로젝트 관련 논의와 프로젝트 중 품질관리 향상·지식 공유, 모범사례 벤치마킹 사항 등을 총체적으로 짚음으로써 이후 순차로 이뤄질 추진사항들의 밑그림을 항목별로 점검했다.

후세인 알 카타니 CEO는 워크숍 참가자들을 격려하면서 “SC&D·TC2C 프로젝트는 우리 임직원과 사우디아람코는 물론 많은 이해관계자의 기대와 성원이 집중돼 있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워크숍을 기회로 사우디아람코와 아람코 자회사들 간의 원활한 협력과 조율을 실현해 성공적인 완공과 시운전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자”고 독려했다. 아울러 김형배 부사장은 “RUC·ODC 프로젝트를 교훈 삼아 기본설계를 탄탄하게 수행하면서 상호 업무범위를 명확히 설정해 실행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고 “JVPS와 모범사례를 상세히 공유하고 검토하자”고 당부했다. 또한 “일정, 코스트, 품질관리가 계획대로 달성될 수 있도록 워크숍을 계기로 심층적인 점검을 지속할 것”을 주문했다. 





미래 주역 착실한 성장

ACT 엔지니어 프로그램 교육

글. 김우춘(기술교육팀)



전사 주니어 엔지니어를 대상으로 하는 ACT-Eng.(Accelerated Competency Transformation for Engineers Program, 이하 ACT-Eng.)이 11월 4일 첫 시행에 돌입했다. ACT-Eng.는 사우디 교육기관인 SPSP(Saudi Petroleum Services Polytechnic)의 전문 교육 솔루션으로서 정유·화학 업계의 주니어 엔지니어들을 대상으로 한다. 공정·설비에 대한 기초 지식뿐 아니라 리더십과 소통 기술을 포함한 포괄적인 교육을 제공해 교육 대상의 조기 역량 강화를 도모하는 프로그램이다. 또한 IFP 트레이닝 교육 인증으로 직결되는 폭넓고 심도 깊은 콘텐츠를 제공해 주니어 엔지니어의 글로벌 역량 강화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다.

후세인 알 카타니 CEO는 주니어 엔지니어들의 성장을 위해 ACT-Eng. 도입을 적극 제안했다. 아울러 ACT-Eng.가 우리의 미래를 열어갈 주니어 엔지니어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본 프로그램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의 뜻을 나타냈다.

현재 전사 주니어 엔지니어 중 1차로 24명이 ACT-Eng.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있다. 이들은 내년 9월까지 약 1년 동안 12개 영역(정제·폴리머 공정, 장비, 전기, 계측 등)에 관해 강의(1주)와 현장직무교육(2~3주)을 병행한다. 특히 각 교육은 모의 실습, 팀 단위 소규모 프로젝트, 워크숍, 이론시험 등 평가로 밀도 높게 운영된다.

이번 교육은 오랜 경험을 갖춘 IFP 트레이닝의 강사진과 SPSP 코디네이터의 밀착 코칭이 이어져 여타 교육에 비해 우수한 학습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IFP 교육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우리 엔지니어들과 전 세계 엔지니어 간에 역량을 비교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안전 가득 유비무환!

직영주유소 현장 화재 대응 훈련

글. 박범준(직영네트워크관리팀)



직영 판매망 고객접점인 주유소 현장에서 우리회사가 민·관 합동으로 화재 대응 훈련을 실시했다. 11월 12일 구도일주유소 과천(경기도 과천시 과천대로)에서 진행된 훈련은 화재 예방에 대한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위험 관리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회사는 직영 판매망에 대한 SHE(안전·보건·환경) 관리 강화의 일환으로 연 1회 자체 소방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그 첫 시행을 맞아 인근 지역 소방서와 함께 훈련을 추진했다.

과천소방서와 협력한 훈련 현장에는 소방차 1대가 출동한 가운데 관계자 13명이 동참했다. 1시간여 동안 소방에 필요한 사항과 초동 화재진압 행동요령, 소방설비 사용법 등을 숙지하는 한편 실질적인 화재 대응 훈련을 이어갔다. 특히 화재 상황을 가정해 조속한 신고와 자체 소화기를 통한 초동 진압, 소방차 진압, 피해상황 집계 등이 순차로 이뤄져 실제상황을 방불케 했다. 아울러 과천소방서의 소방인력이 직접 소방설비 사용법을 안내하고 방화관리 교육을 진행해 화재 대응 훈련의 실효를 높였다. 🌟

유용한 소통 신뢰의 약속

일본 윤활기유 고객 초청 콘퍼런스

글: 심문보(동경지사)



일본 윤활기유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 콘퍼런스(Base Oil Conference 2019)가 11월 7일 도쿄 긴자(銀座)에서 개최됐다. 12회째를 맞이한 콘퍼런스는 현지 고객과 시장 정보를 나누고 친목을 다지기 위한 자리다. 올해는 고객사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해 최신 기술동향을 공유하고 상호 우애를 돈독히 하면서 뜻깊은 시간을 함께했다.

배중호 전무는 글로벌사업본부장으로서 임직원과 함께 고객을 환대했다. 뒤이어 환영사를 통해 고객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사우디아람코 윤활기유 연합(Aramco Base Oils Alliance, 이후 아람코 기유 연합) 체제 아래 한층 다양한 제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지난 10월 도쿄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된 럭비 월드컵에서 일본 대표팀이 활약한 사실을 언급하며 국적과 문화를 뛰어넘는 하나된 팀워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행사를 계기로 상호 이해를 증진해 더욱 굳건한 팀워크를 실현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콘퍼런스 첫 프로그램으로 초청 강의를 진행했다. 일본 현지의 저명한 강사를 초빙한 가운데 '세계 경제 상황에 기반한 일본 경제의 미래'를 주제로 다뤘다. 고객들은 경영 전략 수립에 많은 도움이 됐다는 호평을 전하며 밀도 높은 강의에 만족감을 표했다. 이어서 우리가 준비한 '글로벌 LBO 동향과 윤활기유' 발표를 통해 시장 전망과 기술 경향을 제시하고 아람코 기유 연합에 관한 소개로 유용한 정보를 제공했다. 고객들은 우리회사가 미래 성장을 목표로 견지하는 전략들과 경쟁력 높은 제품에 대해 신뢰를 나타냈다.

이날 만찬은 야카타부네(屋形船)로 불리는 현지의 전통 유람선 위에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일본 전통 무용과 놀이를 함께 체험하면서 현지 문화를 이해하는 한편, 올해 11월 동경지사에 합류한 심문보 사수와 고객 간에 첫인사를 나누며 정겨운 시간을 보냈다.

앞으로도 윤활영업부문은 고객과 관계강화를 더하고 상호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내용의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다. 



늦은 단풍 초겨울 속으로

산악회 정기산행기

글. 피준호(탈황1과)



동료애·건강 일석이조 산행

두 달 동안 이어온 4기 시설 정기보수·점검(T&I)을 마무리 하는 시점에 우리는 3분기 산행을 주왕산으로 결정했다. 개인적으로 2019년 봄 머리를 식힐 겸 주왕산에 들러 대전사, 용추폭포, 절구폭포, 용연폭포 코스를 다녀왔는데 그때 본 멋진 암릉과 계곡 그리고 폭포가 깊은 인상을 남겼다. 주왕산은 중국 당나라 때 주왕이라 칭한 사람이 반란에 실패한 뒤 이곳 동굴에 숨어 지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또한 수달래꽃은 주왕이 자객에게 암살당하며 흘린 피가

묻어 분홍빛 꽃잎에 검은 얼룩을 남긴 것이라는 설화가 전해진다. 11월 2일 아침은 상쾌했고 산행하기에 정말 멋진 날씨였다. 2분기 때와 같이 공업탐에서 10명의 회원들이 탑승한 뒤 신북로터리에서 20명의 회원들이 합류해 총 30명의 인원이 이번 산행에 함께했다. 간단한 아침식사를 가족들에게 분배한 뒤 우리는 에너지를 위해 잠시 잠을 청했다. 두 시간여 뒤 주왕산 근처에 다다랐다. 당시 주왕산 입구에는 사과축제와 다른 등산객들로 인해 차량 정체가 심했다. 등산객들로 봄





빌 거라 예상은 했지만 축제까지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주차장도 이미 가득 찬 상태여서 우리는 먼 곳에서 내려 걸어가기로 했다. 주왕산 대전사 2km 전에 버스에서 내려 티켓팅 장소까지 걸어갔다. 선두에 에스-오 일 봉을 들고 출발해 주왕산 입구까지 가는 길부터 인산인해를 이뤘다. 가을 마지막 단풍을 만끽하러 온 관광객들이 너무도 많아 발 디딜 틈이 없었다.

가을 물든 주왕산

20여 분을 걸어 대전사 입구에서 단체사진 촬영을 마친 뒤 A팀, B팀으로 나눠 각자 체력에 맞게 산행을 시작했다. A팀은 대전사에서 주왕산 정산 주봉을 거쳐서 용연폭포, 용추협곡을 지나 대전사로 오는 3시간 30

분 코스의 산행이고 B팀은 대전사에서 용추폭포, 용연폭포에서 다시 대전사로 오는 왕복 1시간 30분 여정이다.

내가 선택한 B팀의 산행코스는 인파에 치여 산행이 더뎠다. 예상 시간보다 늘어졌지만 가는 동안 멋진 암릉과 계곡의 맑은 물 그리고 단풍 덕에 지루할 틈이 없었다. 40분 정도 걸어 도착한 용추폭포에서는 더 멋진 풍경에 사진을 찍기 시작했고 절구폭포, 용연폭포까지 아름다운 경치를 사진에 담고 대전사로 향했다. B팀이 용연폭포에서 사진을 찍고 있을 즈음 카톡에 A팀의 주왕산 정상인 주봉탈항 사진이 오기 시작했다. 걸음을 재촉하다보니 A팀보다 1시간여 빨리 주왕산 입구에 도착했다. 대전사에서 마지막 기념촬영을 한 뒤 예약한 인근 식당으로 향했다. 청송사과막걸리와 전으로 허기를 채우며 산행 후기를 나눴다. 이번에도 사우 가족들이 많이 참석해 화목한 분위기에서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A팀 산행 회원들까지 모두 자리에 모이고 나서야 우리는 하산주 건배사를 나누며 산행을 마무리했다. 생산, 정비, 건설, 설계 등에 걸쳐 여러 부서원들이 있으니 이야기 주제가 산행에서부터 업무 이야기까지 다양했다. 1시간 30여 분 동안의 토론을 마치고 카페로 자리를 옮겨 또 다른 주제로 담소를 나눴다.

돌아가는 차 안에서는 산행의 피로로 모두



가 단잠에 빠진 채 2시간 30여 분을 달려 울산에 도착했다. 이번 산행이 안전하고 즐겁게 마무리돼 참가한 모든 회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 아울러 더욱 발전해나가는 회장단 이하 총무단이 될 것을 다짐한다. 🌻



이태백 시선 따라 유유자적 뱃놀이

중국 계림 여행기

글. 백준기(제품운영1과)

오랜 지인들과 부부가 동반해 11월 중순 중국 계림(桂林)으로 여행을 떠났다. 16년 전 회사 동료들과 모범사원 해외연수로 다녀온 뒤 다시 가보는 곳이라 고속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중국의 계림이 어떤 모습으로 변해 있을지 상상하며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아직은 부산에서 출발하는 직항편이 없어 항주(杭州)까지 비행기로 이동한 뒤 계림까지 고속열차를 타고 3시간 30분을 더 이동해야 했다. 힘든 일정이지만 오랜만에 다시 가보는 곳이라 설렘과 기대감이 더 컸다.

장거리 이동으로 밤늦게 여정을 풀었다. 첫날은 피곤함에 지쳐 잠이 들었지만 다음날 아침, 코끝을 스쳐가는 계수나무의 꽃향기에 취해 눈을 뜨며 상쾌한 여행 첫날을 맞이했다. 창가에서 바라본 계림은 상전벽해란 말이 실감날 만큼 예전 시골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회색 빌딩들이 즐비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조금은 아쉬운 마음을 안고 이강(漓江)으로 향했다. 언제 그랬냐는 듯 눈앞에 펼쳐진 수려한 자연경관들을 마주하자 서운함은 감동으로 바뀌었다. '수갑산 천하 제일'이라는 말에 걸맞게 신선이 나올듯한 무릉도원이 따로 없었다. 도시는 삭막한 콘크리트 숲으로 변모했지만 자연은 언제나 그 자리에서 변함없이 사람들을 기다리며 평안과 위안을 준다.

눈앞에 펼쳐진 봉우리와 산과 산 사이를 유유자적 흐르는 이강 주변의 풍경을 보기 위해 유람선을 탔다. 한 폭의 수묵화를 그려서 펼쳐 놓은 듯한 비경에 나도 모르게 감성에 젖어들고 이날만큼은 중국 당나라 시인 이태백이 돼 시 한편을 적어본다.



계림

계수나무 노란 꽃향기
바람 따라 춤을 추듯
흐드러지게 피어올라
계림이라 불리우고
먼 길 마다않고 찾아오니
그윽한 꽃향기 머금은 채
낮선 길손을 반겨주네

이강 나룻배에 몸을 싣고
청량한 강바람을 느껴보니
천하 절경에 취했을까
꽃향기에 취했을까
물위에 비친 이태백이
커다란 붓을 휘저으며
산수화를 그려낸다

사공의 어깨 위 가마우지
애처로이 낚시로 시름할 때
나룻배위 흥겨움은 더 해가고
함께 부딪치는 술잔에는
흥이 넘쳐 올라오니
거니는 걸음걸음에는
겹겹이 추억이 쌓여가네

시 한 수의 흥이 채 가시기도 전에 도연명이 극찬했다는 세외도원의 아름다운 절경을 봤다. 커다란 호수를 중심으로 수려한 전원 풍경을 보여주는 이곳은 지금 소수민족들의 삶의 흔적이 남아있는 민속촌으로 바뀌었다. 때마침 와족 전통행사가 진행 중이었다. 2층 창가에서 던지는 붉은 종이 공을 잡으면 결혼한다는 흥미로운 이벤트다. 아내가 옆에 있건만 염치없이 공을 받았다. 많은 사람들 속에서 공을 받으니 새신랑마냥 기분이 좋았다. 내친김에 그 공으로 아내에게 리마인드 프러포즈를 하며 뜻깊은 추억도 만들었다. 이번 계림 여행은 아름다운 자연 비경과 소소한 이벤트로 또 다른 즐거움을 준 여행이었다. 🌸



주렁주렁 고구마 수확

10년 동안 고구마 농사를 지으며 20여 가지 농법 샘플을 연구했다. 심는 시기의 차이는 물론 묘종·파종 시 심는 깊이, 흰 비닐과 검은 비닐의 효과, 고랑 높이와 두께, 파종 시 수분 함량 등 다양한 요소들에 변화를 준 결과 고구마를 한 포기에 바나나처럼 많이 수확하는 방법을 터득했다. 올해는 장호철 사우(MHC과) 밭에서 파종부터 수확까지 손을 거들며 그동안의 모든 노하우 공유했다.

먼저 묘종·파종 전 준비에 있어 토양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겨울철에는 토질이 얼고 녹는 과정을 반복하기 때문에 고구마 고랑을 파기에는 초봄이 좋다. 이때 고구마 고랑을 높게 폭은 적당히 좁게 하면 수확하는 과정이 훨씬 수월해진다. 고랑을 만들 때 거름은 많이 넣지 않고 전년도에 수확하고 남은 줄기 정도면 된다. 고랑 완성 뒤 방치상태에서 비가 50mm 이상 온 날을 기다려 다음날 수분이 많은 상태에서 검은색 비닐을 씌운다. 검은 비닐을 고랑에 덮으면 잡풀이 나지 않아 좋다. 또한 지열 단위 면적당 태양열을 많이 흡수해 토질의 온도를 최대한 올려 고구마의 성장을 돕는다.

파종 시기는 절기상 하지 전후가 적당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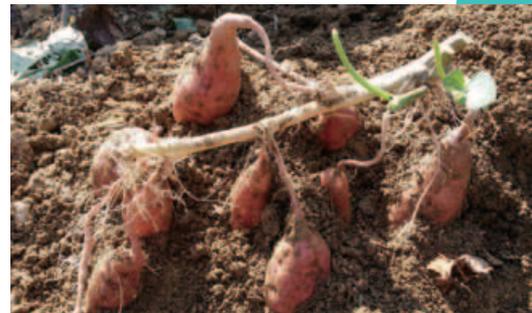
농작물 재배기

글. 박영규(정유1과)

일찍 심으면 에너지가 뿌리보다 줄기에 집중되기 때문이다. 물론 끝물에 심으면 묘종 한 단에 1만 원 정도 하는 가격이 4~5천 원으로 내려가 경제적인 이유도 있다.

처음 뿌리 내릴 때 생존율을 올리기 위해서는 일기예보를 수시로 확인하며 이틀 연속 비올 확률이 70%가 됐을 때 전날 오후에 심는 것이 좋다. 한 포기 6~7마디 중 2~3마디는 지면 위로 하고 3~4마디는 지면 아래로 해서 지면에서 3~4마디가 모두 수평(줄기 마디가 경사지게 하면 안 됨)으로 줄기가 보일 듯 말 듯 얇게 1~2cm 깊이 정도로 심는다. 8~9월 성장과정에 줄기가 땅에 접하지 않도록 올려준다. 중간에 줄기를 자주 따면 본능적으로 에너지가 줄기로 가지 않고 땅 속 뿌리에 집중돼 고구마 수확량이 증가한다.

정리하면 △고구마 거름은 아주 약하게 주고 △파종은 절기상 하지(夏至) 전후에 하며 △비닐은 지열을 최대한 올려주는 검은색으로 할 것, 이 점만 기억하면 된다. 🌱



사실 어느 곳에 가든 깊은 명상을 통해
만나게 되는 것은 같다. 평화롭고 안정된
상태에서 진정한 나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다.
일찍이 몸과 마음의 관계를 연구하는 학문을
발전시킨 인도는 명상에 관해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곳이다. 단순하고 자연스러운
삶이 가까운 인도 아쉬람에서 마음이 전하는
소리에 가만히 귀 기울일 여행 일정을
소개한다.

나를 찾는 여정

인도 명상기행

글. 사진. 백서현<요가 좀 합시다> 저자



1월 1박3일 홍콩 딤섬수업	2월 2박3일 일본 미술캠프 탐방	3월 3박4일 베트남 크루즈 여행	4월 4박5일 태국 요리수업	5월 5박6일 몽골 유목체험	6월 6박8일 스페인 축구관람	7월 7박8일 핀란드 오로라 탐방	8월 8박9일 터키 역사기행	9월 9박11일 쿠바 올드카 여행	10월 10박12일 인도네시아 바리스타수업	11월 11박13일 오스트리아 클래식 공연	12월 12박13일 인도 명상기행
--------------------------	-----------------------------	-----------------------------	--------------------------	--------------------------	---------------------------	-----------------------------	--------------------------	-----------------------------	----------------------------------	----------------------------------	-----------------------------



12박13일 인도 명상기행 추천 일정

- DAY 1** 항공편 이용 → 델리 도착 → 공항 근처 호텔 투숙 뒤 휴식
- DAY 2** 델리 공항 → 데라둔 공항 → 리시케시 차량 이동, 람 줄라다리
- DAY 3** 파르마스 니케탄 아쉬람 방문, 요가/명상 프로그램 체험, 저녁 뷔차 참여
- DAY 4** 요가/명상 프로그램 체험, 트리베니 가트, 저녁 뷔차 참여
- DAY 5** 요가/명상 프로그램 체험, 비틀즈 아쉬람, 저녁 뷔차 참여
- DAY 6** 시바난다아쉬람 방문, 명상 프로그램 체험, 저녁 뷔차 참여
- DAY 7** 요가/명상 프로그램 체험, 락스만 줄라다리, 저녁 뷔차 참여
- DAY 8** 요가/명상 프로그램 체험, 마하리쉬 마헤쉬 요기 아쉬람, 저녁 뷔차 참여
- DAY 9** 리시케시 투어(갠지스강 래프팅 or 니르가르 폭포 탐험 or 쿤자푸리 사원 트레킹)
- DAY 10** 데라둔 공항 이동 → 델리 도착, 시내 관광
- DAY 11** 아그라 원데이 투어 (타지마할, 아그라포트)
- DAY 12** 호텔 체크인 → 공항 이동·항공편 탑승
- DAY 13** 귀국 (기내 1박)



Travel Information

비행시간

약 7시간 40분

시차

한국보다 3시간 30분 느림

화폐

루피, Rs (1루피 ≒ 17원)

교통수단

기차, 버스

여행 정보 추천 사이트

- ▶ 인도 관광청
www.incredibleindia.org
- ▶ 인도 여행을 그리며
cafe.naver.com/india2004
- ▶ 인도 비자 접수
www.vfsglobal.com/india/southkorea



- 1 갠지스강변에 위치한 파르마스 니케탄 아쉬람 외관
- 2 갠지스강 사이에 놓인 람줄라 구름다리
- 3 힌두교에서 신성시 하는 소들을 리시케시 사원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 4 시바난다 아쉬람 내부
- 5 파르마스 니케탄 아쉬람 정원 풍경



추천 Point

갠지스강 흐르는 신성한 땅 리시케시

인도 북부 히말라야 산맥 아래에 위치한 리시케시는 인도인이 신성하게 여기는 갠지스강 상류가 흐르는 도시다. 전체가 채식 구역으로 지정될 만큼 신성한 공간이다. 덕분에 강줄기를 따라 곳곳에 수많은 아쉬람(수행 공간)과 힌두교 사원, 요가 수련센터 등이 자리해 있다. 아쉬람마다 7일, 10일, 한 달, 200시간, 300시간 등 다양한 일정과 주제로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단기 여행자를 위한 일일 체험 수업도 진행한다. 보통 해 뜨기 전 기도와 요가로 하루를 시작해 집중·소리·호흡 명상에 이어 경전과 인도 철학 공부, आयुर्वेदा(힌두교 경전 중 <베다>에 의해 전승된 전통 대체 의학) 치료와 식사, 제례 등 순서로 수련한다.

아쉬람 들여다보기

아쉬람은 수행자들이 모여사는 집으로 공동체적 의미가 강하다. 개인 숙소와 하루 세 번의 식사를 제공한다. 요가와 명상에 최적화된 환경으로, 음식은 쌀과 콩, 과일, 커리, 두부, 치즈, 버섯, 짜파티 등이 대부분이다. 기름과 소금, 설탕도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하루 일과>

호흡 - 요가동작 수련 - 조찬 - 해부학 강의 - 철학 강의 - 오찬 - 요가동작 수련 - 명상 - 석식

*오전 5시 기상·저녁 8시 종료



체험 Point

▶ **위빠사나 명상** <사피엔스>의 저자 유발 하라리가 매년 일정 기간 칩거하며 수련하는 것으로 알려진 위빠사나 명상은 '현상 자체만을 본다'는 의미로 평정심 유지를 핵심으로 하는 초기 불교의 수행법이다. 물론 불교도에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고통을 소멸하는 삶의 기술로서 종교적 제례 없이 누구나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인도에는 1976년 강의를 시작한 세계 최대 규모의 위빠사나 명상센터 '담마 기리'가 있다. 새벽 4시부터 저녁 9시까지 이어지는 열흘 동안의 엄격한 수행 코스를 제공하며 매년 수만 명의 사람이 방문한다.

▶ **초월 명상** 각성, 수면, 꿈과 같이 더없이 행복한 의식상태를 추구하는 명상법으로 TM(transcendental meditation)으로도 통한다. 미국 할리우드 배우 휴 잭맨, 방송인 오프라 윈프리 등 많은 유명인들이 추천한 명상법으로도 화제를 모았다. 하루 20분 씩 두 번, 만트라(기도 때 외는 주문)를 반복적으로 읊으며 마음의 초점을 모으는 것으로 비교적 단순해 초심자가 접근하기 쉽다. 체험에 대한 후기나 관련 연구 데이터가 방대하다. 현재 수도 뉴델리, 러크나우, 리시케시, 벵갈루루, 푸네, 첸나이, 문바이 등 인도 각 주도에 센터가 존재한다.

여행 전 기억하세요!

① 365일 진행되는 아르띠 뿌자

리시케시에서는 1년 365일 아르띠 뿌자(신에게 노래 부르며 기도하는 의식)를 펼친다. 리시케시에서 가장 규모가 큰 행사로 매일 많은 인파가 모여든다.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사람들 각자 기도를 하며 행사 막바지에 이르면 디우(생화 안에 촛불을 넣어 만든 꽃등)를 갠지스강에 띄우며 소원을 빈다.

② 아슈람 규정 엄수

대부분의 아슈람이나 요가 센터는 엄격한 규범 아래 운영된다. 침묵 시간이나 먹을 수 있는 음식, 휴대전화 사용, 흡연과 알코올, 외부와의 접촉, 복장 등 제한이 많으며 개인 수행을 위해 긴 시간 머무는 사람들을 단순한 호기심으로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아슈람마다 제공하는 프로그램 및 규율과 분위기 등이 다르니 둘러보며 본인과 잘 맞는 곳을 선택해서 최소 3일 정도는 머물러 보기를 추천한다.

관광 Point

▶ **파르마스 니케탄 아슈람 Parmarth Niketan Ashram**
1942년 작은 오두막으로 문을 연 뒤 현재 1천개 가 넘는 객실을 보유한 리시케시에서 가장 크고 유명한 아슈람이다. 해마다 세계 요가 축제를 개최하는 곳이기도 하다. 새벽 4시 30분부터 하루 일과가 시작되며 특히 해질녘 강가에서 드리는 힌두교 제례 의식인 아르띠 뿌자는 리시케시를 찾다면 꼭 한번쯤 찾아봐야 한다. 아슈람 안의 넓은 숲과 정원은 산책하기 좋고 आयुर्वेद 치료법과 빈야사와 하타 요가, 요가 니드라 등 다양한 요가 수업도 더불어 체험해볼 수 있다.
홈페이지 <http://parmarth.org>

▶ 시바난다 아슈람 Sivananda Kutir

요가의 전통을 현대화, 체계화하고 오늘날 생활 양식에 알맞은 형태로 진화시킨 스와미 시바난다가 만든 아슈람이다. '섬김·사랑·나눔·정화·명상'이라는 보편적인 원칙을 중심으로 요가와 명상 수업, 건강한 채식, 주제 토론, 자연 친화적인 환경 등을 제공한다. 언제든 홀로 명상할 수 있는 홀, 1만8천여 권의 장서가 있는 도서관, 사원, 박물관, 자선 병원 등이 마련된 아슈람에 머물면서 실천하는 단순한 생활은 정신적·육체적인 성장을 이끈다. 🌻

홈페이지 <http://sivanandaonline.org>



아늑한 품

격 다른 안식처

경남 고성
장산숲·동산숲

글·사진. 전부순

‘아담하다’의 뜻을 ‘고상하면서 담백하다’와 ‘적당히 자그마하다’로 정리한다. 아담하디의 용례는 십중팔구 후자다. 하지만 경남 고성의 마을숲은 전자의 의미까지 아울러 아담하디를 표현하기에 더할 나위 없는 최적의 장소다. 연두와 초록빛이 주는 선명함과 윤기는 숲의 한정된 공간을 뚫고 고성 전체로 번져나간다.



Travel Information 

<장산숲> 경남 고성군 마암면 장산리 일

<두호리 동산숲> 경남 고성군 마암면 고성리 두호2길





1

운치와 멋 더한 장산숲

경남 고성군 마암면 장산리에는 고색창연한 고택을 감싼 정겨운 돌담이 전통마을의 정취를 한껏 드러내고, 길가 넓은 들 한가운데는 아름드리 거목들이 색색단풍을 뽐내며 수려한 자태를 자랑하는 장산숲이 있다. 11월 중순 겨울의 햇살 아래서 숲이 풍기는 정겨움과 포근함으로 길손은 가던 길을 잠시 멈춘다.

장산숲은 600여 년 전에 형성된 마을과 함께 한다. 조선 태조 때 이곳에 집성촌을 이루고 살던 김해허씨 문중의 허기가 바닷바람을 막기 위해 인공으로 만든 방풍림이다. ‘바다가 마을에 비치면 좋지 않다’는 풍수에 따라 마을 곁함을 보충하기 위해 조성했다. 성종 때는 이황의 제자였던 허천수가 연못을 파고 노산정을 세웠다고 전한다.

처음 숲을 만들 때는 길이가 1km에 이르렀는데, 지금은 길이 100m, 너비 60m, 면적 6,000㎡ 정도만 남아 숲을 한 바퀴 돌아도 15분 남짓이다. 아름드리 거목들이 연못과 어우러져 넉넉하고 고상한 풍경을 소담스럽게 자아내는 이

곳에는 개서어나무를 비롯해 느티나무·긴잎이팝나무·소태나무·검노린재나무·배롱나무·쥐똥나무·검팽나무 등 한반도 온대 남부 낙엽활엽수가 우거져 있다. 학술적 가치는 물론 문화적 환경림의 가치가 높아 1987년 5월 19일 경상남도기념물 제86호로 지정됐다. 예사롭지 않은 나무들이 해마다 봄이면 초록, 여름에는 만개한 연꽃, 가을이면 붉은 단풍으로 물들어 마암면의 랜드마크 역할을 해준 덕에 2009년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 마을숲 부문에서 아름다운 공존상(우수상)을 수상했다. 마을 사람들은 고목 250여 그루가 밀집된 숲 중앙에 작은 연못을 파고 그 한가운데 정자까지 세워 품격을 한껏 높였다. 보인정(輔仁亭)이라는 전망대에 오르면 주변 산과 마을이 포근하게 어우러진 모습이 펼쳐진다. 마을 앞산은 나락을 쌓은 것 같아 노적봉이라 부르는데, 이에 영향을 받아서인지 장산 마을에는 부자가 많았다고 한다. 그 한쪽에 1930년대에 지은 정자 죽사정(竹史亭)이 자리한다.

돌다리와 연결된 정자가 바람결에 일렁이는 수면에서 춤을 추고, 시든 연잎 주위에 떨어진 형형색색 낙엽들은 마치 늦은 가을을 애써 배

웅하는 듯하다.

장산숲은 허씨 문중에서 조성했지만 마을주민들 사랑방이자 공동체 활동터 펼쳐지는 중심으로 마을을 풍요롭고 넉넉하게 보듬어왔다. 예전에는 ‘계’를 만들어 숲을 관리했으나, 지금은 주민과 허씨 문중이 함께 훼손된 숲을 치료하고 후계림 조성을 전개하는 등 해마다 숲 정비활동(2~3회)을 펼친다. 한편 이곳 장산마을은 사진 한 장에 짧은 글을 담아 감동을 전하는 ‘디카시’ 창시자 시인 이상옥의 고향이다. 따라서 장산마을은 디카시의 발원지라 불리며 해마다 디카시페스티벌이 이곳에서 열린다.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을숲으로 꼽힌 고성 장산숲의 가을은 단풍이 빛어낸 한 폭의 수채화다.

인재 양성하듯 마을이 키운 동산숲

경남 고성의 마암면은 지역 전체가 한반도 남단을 쭉 빼 닮았고 다시 그 안에 작은 한반도를 품은 지형이 있어 화제가 된 곳이다. 마암면 두

호리 두호마을은 400여 년 전 성산이씨·의령 남씨·밀양박씨·전주최씨·진양강씨 등이 차례로 들어와 마을을 개척하고 전답을 개간하며 부촌을 이뤘다.

일찍이 마을규범인 학계(學契)를 조직했는데 가을에는 가구마다 할당된 미곡을 각출해 모은 재산으로 논 수십 두락(벌씨 한 말을 뿌릴 수 있는 면적)과 임야 수천 평을 매입했다. 이를 토대로 마을에 서당을 세우고 선생을 모셔와 인재를 길러내 충효와 선비의 고을로 이름났다. 고성군에 등록된 5개 서원 중 수림서원·도연서원·위계서원이 이를 증명한다.

마을 어귀에 선조들이 후손들에게 무궁한 번영을 기리는 푸른 엄원을 담아 조성한 동산숲이 있다. 풍수지리설에 따라 마을 진입로 양편으로 북쪽이 허함을 보완하기 위해 팽나무와 서어나무·느티나무 등을 심어 광활한 숲을 만들었다. 경관이 화려한 숲은 지금도 북풍을 막는 동시에 마을사람들이 휴식처로 활용한다. 해마다 정월 초하루에 나이가 300년으로 추정되는 팽나무 허리에 금줄을 두른다. 동제(洞祭)를 지내기 위해서다. 마을을 보호하는 숲이 베푸는 은혜에 대한 보답이다. 숲속 나무를 살펴보면 외피도, 키도, 모양도 각각 다르다. 나무 하나하나가 바로 역사다. 나무의 한해살이가 인간 삶과 비슷하지만, 수백 년을 살아온 고목 인생과 백 년도 살지 못하는 인간이 같을 수는 없다.



- 1 장산숲은 한 바퀴 돌아도 15분이 채 걸리지 않는 아담한 규모다. 이름드러 거목들이 연못과 어우러져 넉넉하고 고상한 풍경을 자아낸다
- 2 두호마을 입구에 늘어선 비석들이 길손에게 마을 이력을 알려준다
- 3 마을 입구 오른쪽 숲속에 자리한 덕호정. 마을사람을 위한 안식처이자 보금자리다
- 4 두호마을 숲은 주민들의 쉼터이자 공론의 자리이고, 신명과 화합과 결의의 마당이다

이처럼 울창하고 장엄한 숲도 1936년 병자년 강풍과 한국전쟁 그리고 2003년 태풍 매미로 거목이 부러지고 쓰러져 많은 손상을 입었다. 다행스럽게 지금까지 잘 보전됨은 '나무 한 그루라도 벌목하거나 손상하는 자에게는 비록 형제간이라도 엄벌에 처한다'는 마을규약을 철저히 지켜왔기 때문이다.

두호 동산숲은 바다와 가깝고 바람이 많아 '바람의 숲'이다. 이 숲은 지난 1980년대 농민함성이 바람을 타고 들불처럼 전국으로 퍼져 우리 농민·민중운동사에 한 획을 그은 '민주동산'이다. 1970년대 강제농정시정운동을 시작으로 1985년 7월1일 당시 정부가 농수축산물을 수입하면서 소값이 급락하자 마을주민 1백여 명이 소 38마리를 끌고 고성읍까지 나가 소몰이시위를 벌여 한우문제 심각성을 전국에 알렸다. 1987년 6월 마을시국선언, 1988년 추곡

수매거부운동, 1989년 민주농정을 위한 마을대회 등 농민운동이 모두 이 숲에서 비롯됐다. 특히 1989년에 벌인 '잃어버린 밀씨를 찾아서'는 우리 밀에 대한 관심을 손수 실천으로 옮긴 운동이다.

한편 마을 곳곳에는 왜적에게 저항했던 역사가 고스란히 남아있다. 평부마을 어귀에 서있는 전승목은 이순신 장군이 승리한 당항포해전의 뜻을 나무에게 부여준 이름이다. 바다 양안을 가로질러 독을 막아 방패 역할을 하는 간사지는 당항포해전의 격전지이자 을선 설화가 깃든 곳으로 다양한 수생식물을 품고 있다.

그 외에 마동호까지 이어진 갯벌은 철새들 보금자리, 경남에서 가장 넓은 갈대밭은 해질 녘 정경이 빼어나 사진동호인들이 자주 찾는 출사지다. 🌿



비즈니스의 기본은 의사소통이다.
직장 동료는 물론 상사나
부하직원과 원활한 관계형성을
위해서도 표현력은 꼭 갖춰야 할
역량이다. 더욱이 보고가 잦은
업무일수록 호흡과 발성,
말하는 자세 등 기본기를 탄탄히
다져두면 한층 효과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

연말 모임이 한창일 시기다. 더욱이 연말 모임
에서는 송년사, 인사말, 축하 등 한 사람씩 소감
을 전하는 일이 빈번하다. 청중을 사로잡는 사
람과 주목도를 분산시키는 사람의 차이점은 표
현력에 있다. 표현력은 생각이나 느낌을 소리
나 몸짓으로 드러내는 능력을 말한다. 표현력
이 좋은 사람은 말이 맛깔나게 들려 사람을 집
중하게 만들고 설득한다.

표현력 훈련 1, 객관적 점검

말하기 자가진단

자신의 말하기 방식을 객관적으로 점검하는
게 우선이다. 말하는 스타일에는 몇 가지 유형
이 있다.

일단 소심형은 목소리가 작다. 표정에 자신감
이 없으며 발표불안이 그대로 얼굴에 드러난
다. 말끝을 얼버무리는 습관이 있다. 불안형은
말할 때 몸을 좌우로 흔들다. 눈을 많이 깜빡이
고 고개를 많이 움직인다. 정확한 단어가 머릿
속에 잘 떠오르지 않는 경우가 많아 ‘아... 그...
저... 음...’ 등의 사족을 많이 자주 내뱉는다. 무
성의형도 있다. 말의 강약이 없고 높낮이 없는
일정한 목소리로 중얼중얼 말한다. 내용에 알
맹이가 없고 허공 속 먼지처럼 말이 흩어져버
린다. 잘난척형은 말 그대로 자기과시 내용이
많고 상대방을 가르치려한다. 큰 목소리로 상
대를 호통치는 경우도 빈번하며 말하는 시간
이 과도하게 길다. 네 가지 유형의 스타일을 갖
고 있다면 낮은 단계의 표현력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본인의 말하기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싶다면
사소하게는 통화하는 목소리나 발표하는 상황
을 녹음 또는 녹화할 것을 추천한다.

말하기 방해 요소 체크

- 손동작이 크고 빈번하다
- 말끝을 흐린다
- ‘아, 그, 음’ 등의 말을 자주 내뱉는다
- 상대 말을 듣기보다 내 말을 많이 한다
- 상대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눈을 자주
깜빡인다

나다음의 화술

표현력 기르기

글. 임유정(<스피치 트레이닝, 60일의 기적> 저자)



1월 통찰력	2월 창의력	3월 기획력	4월 분석력	5월 협상력	6월 추진력	7월 사고력	8월 포용력	9월 통솔력	10월 단합력	11월 어휘력	12월 표현력
-----------	-----------	-----------	-----------	-----------	-----------	-----------	-----------	-----------	------------	------------	------------



표현력 훈련 2, 표현 요건 갖추기

호흡과 과장법

표현력을 높이는 첫 번째 요건으로 크고 또렷한 목소리를 꼽을 수 있다. 소음을 잠재우고 내 말을 전달하려면 크고 응집력 있는 목소리가 필요하다. 목소리는 폐에서 나온 호흡, 즉 숨이 목에 있는 성대를 울려 나온다. 목소리를 바꾸고 싶다면 기본적인 소리의 싹인 호흡부터 바꿔야 한다. 말할 때 숨을 먹지 말고 내뿜으며 바닥에 내던지듯 숨을 토해낸다. 목소리가 한결 크고 시원하게 나온다. 소리를 내 안에 가두지 않고 타인에게 준다는 개념으로 내 뱉으면 훨씬 전달력 있는 소리가 완성된다.

두 번째 요건은 의성어와 의태어다. 식당에서 주문할 때 “괜찮네”라는 표현만 쓰는 것이 아닌 “와, 여기 진짜 맛있네. 기가 막히군”과 같이 세 배의 감정으로 과장해 말하는 것도 좋은 훈련이다. 프로젝트를 잘 마무리한 직원에게 “고생했어”라고 간결하게 말하기보다 “어떻게 이 어려운 일을 성공한거야? 이 대리 없었으면 힘들었을 거야”와 같이 겹겹이 칭찬을 전하는 것도 필요하다. 말과 칭찬은 절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관계를 이어가게 하는 훌륭한 매개다.

표현력 훈련 3, 긍정 생각 심기

마음의 가림막 없애기

기분이 좋으면 말도 잘 나온다. 자신과 나누는 대화를 인트라 스피치(intra speech), 즉 셀프 토크라 한다. 자신과의 대화가 기분을 결정짓고 이 기분이 말하는 스타일을 결정한다.

“뭘 맛깔나게 말해.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있는 게 제일 나아.” “저 사람은 뭐가 저리 기분이 좋아 오버하지? 빨리 대충 말 끝내지.” 이렇게 부정적인 셀프 토크가 습관화되면 결코 어떠한 자리에서든 사람들을 집중시키거나 설득하지 못한다. 스스로 삶에 만족하고 인생을 즐길 때 소박한 말솜씨에도 힘과 에너지를 담을 수 있다. 🌟



발성 훈련 호흡법

① 안면근육 이완

거울 보며 최대한 크게 입을 벌리고

모든 안면근육을 사용해 ‘아·에·이·오·우’ 내뿜기

*목과 어깨 힘을 빼고 턱 들지 않기

② 복식 발성

벽을 뚫는다는 생각으로 아랫배에 힘을 주고

“하~” 5초간 발성하기

*5초·10초·20초씩 늘려 세 번씩 발성 연습

③ 소리 강도 키우기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 (옆 사람에게 말하듯)

개구리 울창이 적 생각 못 한다 (1m 거리)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3m 거리)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5m 이상 거리)

연말 모임 건배사 유형

① 진솔한 고백

한 해를 돌아보며 좋았던 일, 아쉬웠던 일을 이야기한다.

예시)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좀 더 참을 걸, 잘해줄 걸, 나눠줄 걸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하지만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연말 가기 전 고마운 사람들에게 전화라도 해야겠습니다.”

② 유행어 활용

모임 중 유행어로 화두를 던진 뒤 관련 단어로 건배사를 만든다.

예시) “요즘 펑수 캐릭터가 인기라죠. 제가 오늘 펑수로 건배사를 해보겠습니다. 운을 띄어주세요. ‘펑’ 하고 토라지지 말고 오늘만큼은 좋은 사람들과 ‘수’다 나누며 행복한 연말 마무리합니다.”

③ 시의성 있는 덕담

모두가 공감하는 소재로 이야기를 곁들여 말하는 방법이다.

예시) “여러분, 2020년은 경자년으로(庚子年)으로 흰 쥐의 해입니다. 쥐는 다산과 풍요, 번영을 상징하는 동물이죠. 쥐띠 해를 맞아 하시는 일마다 좋은 결실 맺기를 응원합니다.”

인생에 하루하루가 더해질수록 많은 것들이 저축처럼 더 해지지만 어느 순간부터
늘 보는 가족, 친구, 직장 동료 외에 새로운 만남은 더 이상 늘지 않는 걸 깨닫게
된다.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이를 만난다는 것, 잊고 있던 즐거움과 만나는 경험이다.
만남으로 풍요로운 여가 향유 방법을 소개한다.

만남의 발견

[관계투자형]
취미 정보

캠핑



자연과 사람의 관계 맺기

텐트 짊어지고 계곡과 바다를 찾던 예전과 달리 다양한 테마의 캠핑장이나 글램핑, 차핑, 백패킹 등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의 캠핑이 등장하고 있다. 왈차하게 여러 팀이 모여 캠핑을 떠나는 대신 가족 단위 또는 혼자 캠핑을 즐기는 추세다. 특히 외동 자녀가 있는 가정의 캠프 참여가 활발하다. 관련 카페에서 가족끼리 만나거나, 카페 행사 이벤트를 통해 캠핑을 떠나기도 한다. 아이들은 물론 가족끼리도 친구가 돼 오랜 인연을 이어가는 이들이 적지 않다.

● 도움 되는 정보

캠핑 퍼스트

어느 것부터 준비해야 할지 막막한 캠핑 초보라면 장비부터 캠핑장, 캠핑요리까지 거의 모든 관련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이곳에 들려 정보를 얻는 것을 추천한다. 5만여 명의 회원이 캠핑을 통해 얻은 정보를 주고받는다.

홈페이지 <https://cafe.naver.com/campingfirst>

외동자녀 캠핑친구 만들기

카페에서 진행하는 정캠(정기캠프)부터 회원들끼리 지역별, 목적별 등으로 진행되는 번캠(번개캠프)까지 다양한 캠핑 행사가 있어 학교 학원 외에 친구 만나기가 어려운 외동자녀는 물론 가족까지 캠핑을 통해 만날 수 있다.

홈페이지 <https://cafe.naver.com/onlychildwithcamping>

우리 동네 책 사랑방

온라인 서점과 대형 서점이 들어서며 작은 서점들이 사라졌다. 그런데 몇 해 전부터 이른바 독립서점으로 불리는 작은 책방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다양한 종류의 책을 판매하는 일반 서점과 달리 시집·미술·사진·역사 등 한 분야에 특화된 책들을 주로 취급한다. 북토크 문화를 꽃피우는 살롱으로도 활약한다. 책방이 다루는 주제에 따라 또는 위치한 지역에 따라 오프라인 모임의 성격과 주제가 결정된다. 독서 토론은 물론 낭독이나 글쓰기까지 다양하다. 학문적 동지부터 마음 맞는 동네친구까지 만들 수 있어 트렌디한 모임으로 각광받는다.

● 도움 되는 책

<우리, 독립책방>

하나의 '대안으로서의 문화'가 되어가는 독립 책방에 대한 얘기를 담았다. 어느 책방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를 잘 정리한 독립책방의 아카이브다.

<같이 읽고 함께 살다>

'한국의 독서 공동체를 찾아서'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 이 책은 10대 고등학생부터 80대 할머니까지 모두 아우르는 책읽기 공동체에 대해 정리했다.

동네 책방
모임



인문학 살롱

삶을 고찰하는 인문학 세계

인문학은 유행이 아니라 생활과 사상의 근간을 이루는 학문으로 글이나 숫자만큼 생활 전반에 스며있다. 인문학 열풍이 한 차례 지났다 해도 사람들은 끊임없이 인문학을 중심으로 모인다. 대개 인문학살롱은 오프라인 중심으로 소통하며 친목보다는 콘텐츠 기반을 바탕으로 활동한다. 스터디나 토론뿐 아니라 작은 공연이나 강좌를 열기도 한다. 역사·철학·문학 등 다양한 분야만큼 연령대별 모임이 다양하다. 최근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자체나 지역 공공 도서관에서 적극적으로 인문학살롱을 운영하고 있다.

• 도움 되는 정보

문래당

여러 대학의 인문학 연구자와 인문학 연구자와 음악·미술 분야의 예술가, 문화기획자들이 함께 만든 우리 마을의 인문예술공유지다.

홈페이지

<https://www.moonraedang.net>

취향관

꼭 인문학이 아니더라도 주제 혹은 취향에 따라 살롱문화를 향유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유료로 운영되지만 언제나 조기 마감된다.

홈페이지

<https://www.project-chwihyang.com>



클래식 감상 모임



조용하지만 강렬한 음악 수다

음악 감상 사이트,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에 밀려 요즘 음악 감상 오프라인 모임을 찾기 힘들지만 클래식은 예외다. 모두가 다 아는 베토벤의 '운명' 교향곡만 해도 수천 명의 지휘자와 오케스트라가 저마다의 해석으로 연주했기 때문에 듣는 사람마다 선호하는 지휘자나 음반이 다르다. 앰프와 스피커에 따라 연주의 느낌도 달라져 다른 음악 장르에 비해 감상 모임은 많은 편이다. 클래식 입문자부터 스트라디바리우스와 가르네리의 바이올린 소리를 구분해 감상하는 마니아까지 편하게 음악을 듣고, 감상을 나눌 수 있다. 대개 지역 위주로 소모임이 활발하다. 🌟

• 도움 되는 정보

고전음악감상실 하이마트

흔히 떠올리는 가전제품 판매점이 아니다. 1957년 문을 연 60여 년 전통의 고전음악감상실이다. 독일어로 고향이란 뜻의 이곳 하이마트에는 60석 좌석의 감상실과 세월의 흔적이 묻은 전축실이 있다.

위치 대구시 중구 동성로6길 45, 3층

문의 053-425-3943

슈만과 클라라

클래식음악동호회다. 서울을 중심으로 음악 감상모임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정기 감상회도 개최한다. 음악계 신보와 클래식 공연·티켓정보를 함께 제공한다.

홈페이지 <https://cafe.naver.com/gosnc>

2019년 이달의 활력평가

12월 탐구영역 [연말]

<이달의 활력평가>는 달마다 시의성 있는 인문·생활 정보 기반의 퀴즈를 시험지 형태로 제공합니다.
쉬어가는 차나에 재미와 여유를 더할 퀴즈로 소소한 활력을 충전해 보세요. 정답과 해설은 오른쪽 면에 공개됩니다.

♣ 건강 ♣

- 다음 중 음주 뒤 숙취 해소에 가장 좋은 것은?
① 숙취 해소 음료 ② 해장국 ③ 물 ④ 초콜릿
- 겨울철 건강관리법으로 옳지 않은 행동을 고르시오.
① 24시간 창문 꼭 닫고 따뜻하게 지내기
② 1.5리터 이상 수분 섭취하기
③ 적정 온도에서 운동하기
④ 손 자주 씻기
- 건조해지는 겨울 피부 건강에 좋지 않은 습관은?
① 중성 또는 약산성 비누로 씻기
② 매일 미지근한 물에 샤워하기
③ 수건을 누르듯이 하여 물기 말리기
④ 보습 크림 바르기

♣ 인문 ♣

- 연말 타종행사의 상징인 보신각종은 실제 []의 복제품으로 1985년 광복절 40주년 행사부터 타종에 사용됐다.
① 진지대왕 신종 ② 정조대왕 신종
③ 성덕대왕 신종 ④ 세종대왕 신종

5. 크리스마스 썰을 처음으로 발행한 나라는?

- ① 영국 ② 미국 ③ 덴마크 ④ 노르웨이

6. 산타클로스의 실제 모델인 성 니콜라스와 관계없는 크리스마스 상징은?



- ① 굴뚝 ② 사슴 ③ 양말 ④ 빨간 옷

♣ 정책 ♣

- 음주운전의 처벌 기준으로 틀린 것은?
① 측정거부 시 1~5년 이하 징역·500~2천만 원 벌금
② 삼진아웃 제도로 3회 위반 시 가중처벌
③ 처벌 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으로 강화
④ 0.03%의 단순 음주도 적발 시 벌점 100점
- 음주운전은 1회 적발 시 10%, 2회 적발 시 20%의 []가 할증되며,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대인사고 300만 원, 대물사고 100만 원의 []을 부담해야 한다.

2019년 이달의 활력평가

정답·해설

1.

*자료 : 대한간학회

③ 물

다양한 숙취해소법이 있지만 임상시험으로 효능이 입증된 제품은 없다. 물은 탈수를 막고 알코올분해를 돕기 때문에 술을 마시는 중에도, 마신 후에도 물을 계속 마시는 것이 좋다. 꿀물로 알코올 분해 과정 중 소모된 포도당을 보충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2.

*자료 : 국민건강저식센터

① 24시간 창문 꼭 닫고 따뜻하게 지내기

겨울철 밀폐된 공간에는 각종 미세먼지와 오염물질, 감기 바이러스가 떠다니고 있다고 생각해도 좋다. 적어도 1~2시간마다 한 번씩 공기를 환기시켜야 감기에 덜 걸린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도 하루 1회 정도는 환기한다.

3.

*자료 : 삼성서울병원

② 매일 미지근한 물에 샤워하기

겨울은 주2~3회, 1회 10~15분 이내로 가볍게 샤워하는 것이 좋다. 때 전용 비누나 강한 타월을 사용하는 것은 피부를 더 건조하게 만든다. 샤워 직후 욕실에 수증기가 남아 있을 때 보습제를 바른다.

4.

*자료 : 한국민족문화대백과

③ 성덕대왕 신종

제야의 종을 담당했던 보신각 동종(보물 제2호)은 조선 세조 13년(1468년) 주성한 것으로 임진왜란 후인 1594년부터 종루에 달아 조석을 알렸다. 하지만 보신각종 훼손 사실이 알려지며 1985년 국립중앙박물관에 옮겨졌다. 현재 보신각종은 국립경주박물관에 있는 성덕대왕 신종(국보 제29호)의 복제품이다.

5.

*자료 : 대한결핵협회

③ 덴마크

크리스마스 썰은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우체국 직원으로 근무하던 아이날 홀벨(Einar Hollbelle)이 결핵으로 죽어가는 아이들을 위해 우편물에 썰을 붙이는 것을 생각했다. 이 아이디어는 미국을 거쳐 전 유럽으로 퍼졌으며 우리나라는 1932년에 처음 발행했다.

6.

*자료 : 시사상식사전

④ 빨간 옷

성 니콜라스는 대주교로 남몰래 선행을 많이 베풀었다고 전해진다. 어려운 이웃을 몰래 돕기 위해 굴뚝으로 금화를 던졌는데 금화가 우연히 벽난로 양말 속으로 들어갔으며, 사슴(순록)을 타고다는 것은 그를 그린 시(詩)의 문장이다. 산타의 빨간 옷은 20세기 광고의 산물이다.

7.

*자료 : 도로교통공단

② 삼진아웃 제도로 3회 위반 시 가중처벌

삼진아웃제도는 상습적인 음주운전자를 예방하고 가중처벌하기 위해 이진아웃제도로 변경됐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행정처분(정지 또는 취소)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2년간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박탈한다.

8.

*자료 : 도로교통공단

[보험료], [자기부담금]

음주운전 적발 시 징역이나 벌금 같은 형사적 책임과,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 같은 행정적 책임 외에도 보험료 인상과 자기부담금 같은 민사적 책임도 져야한다. 2019년 6월부터 처벌기준이 강화되었으므로 소주 한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에 해당한다. 🍷

<겨울 : 눈 속의 사냥꾼들>
1565년·패널에 유채
117x162cm·빈 미술사박물관



겨울 이기는 지혜

기후 표현한 과학적 색채 &
피테르 브뤼헬 <겨울 : 눈 속의 사냥꾼들>

얼음장보다 차가운 청회색

피테르 브뤼헬(이하 브뤼헬)의 작품 <겨울 : 눈 속의 사냥꾼들>은 유난히 낮이 익다. 미술 교과서에 자주 실린 이 작품은 진하고 선명한 색감으로 그린 눈 덮인 마을과 산, 사냥꾼들을 담고 있다. 1565년, 무려 450여 년 전 작품인데도 불구하고 그리 먼 시간차가 느껴지지 않는다. 평온하고도 활기차 보이는 겨울의 풍경이다.

브뤼헬은 이 그림을 일종의 달력 삽화로 그렸다. 그림을 청탁한 이는 브뤼헬에게 각 계

바로크 시대의 회화는 연극의 한 장면처럼 명과 암을 대비해 극적 상황을 연출하는 '키아로스쿠로 기법'이 특징이다. 이탈리아 화가 카라바조가 처음 시도한 뒤 렘브란트, 귀도 레니 등이 계승했다. 이로 인해 회화는 승리나 죽음의 순간을 더욱 극적으로 보여주거나 더욱 엄숙하고 장엄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렘브란트는 물감 농도와 빛의 역할을 실험하며 키아로스쿠로를 자신만의 해석으로 발전시켰다.

절을 표현하는 여섯 점의 연작을 요구했고 브뤼헬은 이른 봄, 늦봄, 이른 여름, 늦여름, 가을, 겨울의 여섯 작품을 그렸다. 16세기 플랑드르(오늘날의 벨기에, 네덜란드 지역으로 '저지대'를 뜻한다)에서는 계절을 여섯 가지로 구분했다고 한다. 이 여섯 점 중 늦봄을 그린 그림은 소실됐고 남은 다섯 그림 중 세 점이 오스트리아 빈의 미술사박물관에 소장돼 있다. 현재도 빈 미술사박물관에는 <겨울 : 눈 속의 사냥꾼들> 함께 <이른 봄>과 <가을> 그림이 나란히 전시돼 있지만 관람객

글.
이식(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책임연구원)
전원경(예술의전당 인문아카데미 강사)

들의 시선은 대부분 겨울로 향한다.

브뤼헬은 햇빛을 사용해 만물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소생하는 이른 봄의 과정을 표현했고, 소떼들이 목초지를 떠나 농가로 돌아오는 가을은 푸른색으로 계절의 변화를 그렸다. <겨울 : 눈 속의 사냥꾼들>에서 계절을 나타내는 색깔은 눈의 흰색과 차가운 얼음 느낌의 청회색이다. 화가는 언덕에서 멀리 마을이 내려다보이는 구도를 택해 마을 정경을 시원스럽게 담았다. 발목까지 빠지는 눈을 헤쳐 가며 마을로 돌아오는 세 명의 사냥꾼은 겨우 겨우 한 마리만 잡은 모양이다. 사냥꾼들 왼쪽의 비탈진 농가에서는 차가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농부와 아낙들이 불을 피워놓고 일하느라 여념이 없다. 마을의 운하는 두꺼운 얼음으로 꽁꽁 얼어붙었다. 그 위로 아이들이 몰려나와 스케이트나 썰매를 타는 중이다. 하지만 앙상하게 남은 나무에 앉아 있는 까마귀들의 모습에서도

차가운 날씨가 느껴진다.

브뤼헬은 이 그림에서 자신들의 일에 열심인 선한 사람들을 보여준다. 추운 날씨에도 사냥꾼, 농부, 아이들은 각자가 해야 할 일에 열중하고 있다. 이렇게 스스로의 직분에 근면한 사람들에게 천국이 가까이 있다는 것이 당시 플랑드르 사람들이 믿던 개신교의 가르침이었다. 말하자면 <겨울 : 눈 속의 사냥꾼들>은 풍속화인 동시에 간접적으로 종교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그림이기도 하다.

유난했던 16세기의 동장군

이 작품에서 특히 화가의 예리함이 돋보이는 부분은 얼어붙은 운하와 하늘을 거의 같은 색으로 칠했다는 점이다. 차가운 청회색 하늘에서 불어 닥치는 싸늘한 바람이 절로 느껴지는 듯하다. 실제로 브뤼헬이 살았던 16세기 겨울의 기온은 지금보다 더 낮았다. 지구의 기후는 빙하기와 간빙기를 교대

로 지나간다. 마지막 빙하기는 약 1만 년 전에 끝난 위스콘신 빙하기였다. 현재 지구는 간빙기를 지나는 중이다. 그러나 이 간빙기 중에도 평균 기온이 다른 시기보다 조금 더 낮은 시기인 '소빙하기'가 간간히 나타난다. 13~19세기의 지구가 이 소빙하기를 지나갔고 이 시기 겨울 기온은 현재의 겨울 기온보다 평균 1도 정도 낮았다고 한다.

특히 브뤼헬이 살았던 1500~1600년대 겨울 기온은 다른 시기보다 더 낮았다는 증거가 여럿 있다. 예를 들면 이 시기에 성장한 나무로 제작된 바이올린 명기 스트라디바리우스의 소리는 유난히 빼어나다. 추위 때문에 나무들이 늦게 자라 그만큼 나뭇결의 밀도가 촘촘한 데 이 바이올린 소리의 비밀이 있다고 한다. 또 소빙하기의 겨울을 이기지 못하고 포도나무들이 모두 죽어버려 유럽인들이 와인 제조를 포기하고 맥주를 중점적으로 만들기 시작했다는 설도 있다.

현재도 기후의 예측은 매우 어려운 과제다. 2030년을 전후해 새로운 소빙하기가 올 것이라는 관측이 있긴 하지만 정확히 알 수는 없다. 하물며 16세기에는 다가올 겨울이 얼마나 추울지 짐작하기란 거의 불가능했다. 또 당시는 현재처럼 난방이 잘 되는 주택을 지을 수 없는 형편이어서 이래저래 서민들의 겨울나기는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었다. 근대 이전 유럽인들의 주요한 사망 원인은 폐렴이었는데 특히 겨울마다 폐렴 환자가 속출했다고 한다. 브뤼헬은 춥고 고통스러운 겨울을 헤쳐 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려 인간의 지혜와 용기가 자연의 시험을 이겨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려 했다. 🌻

<베들레헬의 인구조사>
1566년·목판에 유채썬x165cm·벨기에 왕립미술관





마음 데우는 온기 배달

사랑의 연탄나눔



우리회사는 11월 5일 홍제동 개미마을(서울시 서대문구 세검정로)에서 '사랑의 연탄나눔' 행사를 열고 '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나눔 운동본부'에 연탄 5만 장을 기부했다. 임직원 자원봉사단 60여 명은 노후 된 주택에서 겨울 혹한에 무방비로 노출된 저소득 가정과 독거노인 가정 열 곳에 연탄 200장씩을 배달했다. 알 카타니 CEO는 "임직원 봉사단의 따뜻한 정성과 마음을 모아 전달한 연탄이 어려운 이웃의 따뜻한 겨울나기에 조금이나마 도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우리회사는 저소득가정의 난방 지원을 위해 2008년부터 해마다 '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나눔 운동본부'에 연탄을 기부해왔다. 이와 함께 임직원 자발적 참여로 구성된 햇살나눔봉사단을 통해 희망 실은 연탄을 배달하고 있다. 





매서운 겨울 매콤한 나눔

사랑의 김장나눔



겨울 초입, 마음 훈훈한 뜻깊은 나눔 행사가 펼쳐졌다. 우리 임직원은 11월 26일 동천체육관(울산시 남구 염포로) 광장에서 울산시 자원봉사센터 봉사자들과 함께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에 동참했다.

올해로 13년째를 맞이하는 행사 현장에는 200여 명이 동참해 배추 4천 포기과 무1천 개 등을 재료로 약 10톤 분량의 김치를 담가 900여 가구에 전달했다. 알 카타니 CEO는 “한국에 와서 처음 맞는 겨울, 김치도 처음 만들어 본다”며 “우리의 나눔 활동들이 울산이 더 살기 좋고 일하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행사 말미에는 행운권 추첨 이벤트를 마련해 자원 봉사자들에게 선물을 증정했다. 우리회사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시민으로서 이웃과 함께 나누는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예정이다. 🌻





세상 비추는 의로움

올해의 시민영웅 시상



이웃을 위해 의로운 희생정신을 발휘한 시민영웅이 올해도 우리 사회 곳곳에서 활약했다. 우리 회사는 11월 25일 올해의 시민영웅 시상식을 열고 위험에 처한 이웃을 위해 투신한 시민 23명에게 상패와 상금 총 1억4천만 원을 전달했다. 2008년부터 시행한 올해의 시민영웅 시상상은 용감한 시민정신을 발휘해 이웃을 구한 의인들을 격려·지원하기 위한 햇살나눔 활동이다. 

시민영웅 활약상



부상자

김영근(64세)

한 패스트푸드 매장 직원이 흥기를 든 범인에 붙잡힌 상황에서 곧바로 경찰에 신고한 뒤 위험을 무릅쓰고 매장 안으로 들어가 범인으로부터 직원 탈출을 도움

성지훈(42세)

편의점 여성 점주를 과도로 위협하는 강도를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한 뒤 곧장 가게 안으로 뛰어들어 범인을 제압해 경찰이 범인을 검거 할 수 있도록 도움

활동자

배기환(59세)

해상에서 어선 한 척이 거센 파도로 침수돼 위급하다는 신고를 받은 뒤 본인의 조업을 중단한 채 신속히 사고현장으로 이동, 침몰직전에 선원 7명을 전원 구조함

이요한(38세)

철민3중 경기 참가자들이 수영 중 물살에 휩쓸리는 상황을 목격하고 즉시 본인 사업장의 보트와 구명조끼로 직원들과 구조 활동을 펼쳐 100여 명을 구조함

최세환(24세)

초등학생이 아버차를 몰래 운전해 순찰차 등 차량 8대를 들이 받으며 질주하는 상황에서 출동 경찰관과 협력해 자신의 승용차로 도주로를 차단, 대형교통사고를 예방함

허영일(49세)

48톤급 국내어선과 164톤급 일본어선의 충돌사고로 침수된 어선의 선원 10명을 구조한 뒤 기관실로 입수해 유류 파이프를 잠가 경유 150드림(3만ℓ) 유출을 막음

손영진(46세)

도로에서 사고 차량 한 대가 멈추지 않자 운전자의 이상을 감지하고 운전석 문을 열어 기절해 있던 운전자 대신 차량을 멈춰 세움

배창식(34세)

튜브를 타고 해수욕을 즐기던 중 너울성 파도로 멀리 휩쓸려 가던 초등학생 2명을 발견하고 즉시 바다로 뛰어들어 해병으로 무사히 구조함

성치훈(27세)

터널을 지나던 화물트럭 하부의 불꽃을 보고 문제 차량 20m 앞에 정차해 차량 운전자를 안전한 곳에 대피시키고 초기 진화를 실시함

김경문·김준엽·하철민(19세)

술 취한 20대 남성이 폐지를 줍던 70대 여성을 일방적으로 폭행하는 것을 목격하고 이를 제지한 뒤 경찰에 신고해 폭행범 체포에 기여함

박명제(60세)·신봉철(52세)

다가구주택 LNG폭발 상황에서 구조를 기다리던 주민을 발견하고 주차된 차량 위로 올라가 탈출을 도왔으며, 고립된 주민 6명과 계단에 쓰러져 있던 주민 1명을 구조함

전중현(26세)·변정우(22세)

휴대폰 매장 직원이 술에 취한 50대 남성으로부터 복부와 얼굴 등을 흉기에 찔린 상황에서 범인을 제압해 경찰에 인계하고 부상자에 응급조치를 취함

윤대근(23세)·김기호(24세)

강도 미수로 도주하는 범인을 발견하고 약 500m를 뛰어가 범인을 검거해 경찰에 인계함

정해림·정해정·신인경·박시은·이예림(18세)

비탈길에서 뒤로 밀린 차량 바퀴에 다리가 끼어 쓰러진 운전자를 목격하고 현장으로 달려가 승합차를 들어 올리며 주변에 도움을 요청해 운전자를 구조함

S-OIL NEWS



선배 임원의 날 행사

전·현직 임원이 함께하는 '선배 임원의 날' 행사가 11월 27일 롯데호텔 사파이어볼룸에서 개최됐다. 올해로 10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회사 발전을 견인한 선배 임원과 현직 임원이 만나 우애를 다지면서 밝은 미래 성장을 기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후세인 알 카타니 CEO는 현 임원들과 함께 전 임원들을 만나 반가운 인사를 나누고, 과거로부터 이어진 성공과 미래 가능성을 현실화하기 위한 여러 도전에 관해 격의 없이 소통했다. 전 임원들은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을 목표로 전력을 다하고 있는 임직원들에게 격려의 마음을 전하면서 변함없는 지지를 다짐했다.

'대한민국 안전대상' 인천저유소 소방청장 표창

인천저유소가 제18회 대한민국 안전대상 시상에서 소방청장상을 수상했다. 소방청이 주최하고 안전인증원·소방산업기술원·소방안전협회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안전대상은 국내 안전 분야의 가치를 높이고 자율 안전관리를 유도하면서 소방 관련 우수 대상을 포상하기 위한 제도다. 인천저유소는 안전경영 시스템, 소방시설, 건축방화, 에너지, 피난·자연재해 등에 걸친 심사에서 비상대응 통합방재 시스템, 수막(Water Curtain) 시스템 등 소방시설을 비롯한 현장 안전체계 구축과 운영의 탁월한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공상 해양경찰·소방관 치료비 전달

우리회사가 공무 중 부상을 입은 해양경찰과 소방관들을 위해 치료비 총 1억 원을 전달했다. 전달식은 11월 6일과 12월 4일, 인천해양경찰서 3008합정과 영등포소방서에서 각각 진행됐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한 공상 소방관 치료비 기부를 통해 전국의 소방관 총 30명이 6천만 원을 지원받았다. 한편 실종수색과 응급구조 활동 중 부상을 입은 전국의 해양경찰 21명에게는 치료비 4천만 원이 지원됐다.



사회공헌워크 서울시장 표창

서울시와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가 개최하는 사회공헌워크 행사에서 우리회사가 서울시장 표창을 수상했다. 올해 행사는 11월 14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우리회사는 서울지역봉사단 조직으로 지역사회를 위해 활동하고 저소득가정 화재피해 복구 지원을 통해 서울지역 나눔을 실천한 공적을 인정받았다. 아울러 이날 행사에서 총 15개 기업이 함께하는 기업 공동 나눔 협약식에 동참해 서울지역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우리회사는 2011년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와 파트너십을 체결한 이래 연간 1억3천700만 원 규모의 봉사 정기·팀 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해 오고 있다.

DECEMBER 2019



‘한국의 경영대상’ 3년 연속 브랜드경영부문 종합대상

우리회사가 2019 한국의 경영대상 시상에서 3년 연속으로 브랜드경영 부문 종합대상을 차지했다. 시상식은 12월 3일 신라호텔에서 진행됐다. 한국의 경영대상은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이 1987년부터 주관해온 경영혁신 분야의 포상 제도로, 브랜드·고객만족·사회책임 등 각 영역에서 탁월한 경영활동으로 고객 가치를 제고한 기업을 선정해 시상한다. 올 9~11월 서류 심사에 이어 대학 교수진으로 구성된 전문 심사위원단의 현지 심사, 사회적 평판 등을 아우르는 종합 심사 등 중층의 평가를 거쳤다. 우리회사는 리더십·전략체계·경영지원인프라·마케팅활동·경영성과 등 다섯 개 영역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아 브랜드경영 부문 1위에 등극했다.

협력업체 대상 구매 설명회

협력업체 대상 구매 설명회가 11월 6일과 13일 각각 본사와 온산공장에서 열렸다. 올해 설명회는 국내 거래업체 영업·입찰 담당자 총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전과 오후로 나눠 진행됐다. 협력업체 관계자들은 우리회사가 구축·운영 중인 구매 절차와 윤리경영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들은 뒤 구매 시스템 사용자 교육에 임했다. 우리회사는 구매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 일환으로 해마다 협력업체 대상 설명회를 개최해 구매 절차와 윤리경영 정책에 관한 이해를 돕고 있다.



태화강 따라 추억 심기

HYC공장봉사단
어르신 동행 태화강 나들이

글. 피준호(탈황1과)



울산중구노인복지관과 연계한 HYC공장봉사단의 올해 활동도 끝이 보인다. 2019년을 한 달여 남겨두고 11월 16일 어르신들과 야외로 나섰다. 우리나라 제2호 국가정원으로 최근 선포된 태화강에서 나들이를 겸해 화분을 만들고 올 요량이였다.

입동이 지나 쌀쌀한 날씨를 염려했는데 다행히 강변에 도착할 무렵 햇볕이 내리쬐면서 근심을 걷어갔다.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 두 분을 위해 휠체어를 대여한 뒤 여타 어르신을 모두 모시고 국화밭에 들렀다. 어르신들은 우리 봉사단과 사진을 찍고 젊은 날 추억을 되짚으신다. 산책로를 따라 한 발 한 발 걸음을 옮길 때마다 주위 경치에 감탄하며 “예전의 태화강 모습과는 정말 많이 달라졌다”고 놀라워하신다.

40여 분 산책 끝에 쉼터로 모였다. 강사님 말씀을 따라 화분에 꽃을 심는 어르신 손길이 조심스럽다. 저마다 만든 화분을 소중히 안고서 이날 일정을 마무리했다. 뜨끈한 스프와 쌀국수, 돈가스로 점심 대접까지 마치니 행복한 하루가 지났다. 단 한 번 남은 올해 봉사에 더 많은 봉사단원이 참여해 좋은 결실을 맺었으면 한다. 🌻





11.21

김호정 상무보(홍보팀리더) 장인상

보직변경

11.18

지강만(2급.서부영업지원팀 판매담당)→
대전지사(판매담당)

박관규(4급.대전지사 판매담당)→
서부영업지원팀(판매담당)

12.02

허민구(1급.공정Upgrading추진부장)→
TC2C추진팀리더

김순식(1급.TC2C TFT팀리더)→
시설투자기획팀리더

백승민(3급.TC2C TFT)·노지권(4급.공정
Upgrading추진부 공정혁신1과)·진명진(4
급.공정Upgrading추진부 공정혁신2과)·신
현호·이석균(4급.공정혁신추진팀)→
TC2C추진팀

유인호(2급.TC2C TFT)→프로젝트기술1팀
정낙림(3급.전사수급최적화팀-TC2C TFT
파견)→전사수급최적화팀

김관희(4급.TC2C TFT)→시설투자기획팀

정년퇴직

11.30

김경식(2급.LPG팀)

이재완(3급.동부네트워크관리팀 판매담당)

류춘희(별정.총무팀)

퇴직

11.27 박재인(전임법무원.준법지원팀)

12.02 김솔하(4급.신규사업팀)

결혼

11.23 조국현(남양주지사) 아들

11.30 이동화(계전설계팀)
박용순(수원지사) 딸
이창안(계기2과)
최현태(품질관리팀)

12.01 오동우(정유/유회공정팀)

12.07 황종학(정유2과) 딸
이철호(에너지관리팀)
김태현(검사기술팀)

12.08 박종인(유회생산1과)

12.15 김수경(동력7과)
윤현수(제품운영1과)
김정현(법무팀)
하두곤(총무보안팀) 아들
하현영(Alkylation2과)

12.21 성준희(해상출하과)

부음

11.07 전기열(기계2과) 모친
정필규(기계기술팀) 부친

11.08 김병훈(생산최적화팀) 조모
강진호(창원지사) 빙부

11.09 김태우(유회생산1과) 부친

11.17 홍준표(HYC공정팀) 외조부

11.18 김동인(해외마케팅전략팀) 부친

11.19 안기홍(제품운영2과) 빙모

11.21 홍성배(수급운영팀) 부친

11.22 정주영(안전대응팀) 빙부
김경우(PP영업팀) 조모

11.24 임형석(MHC과) 부친

11.25 이형로(ERU과) 외조모

11.26 김강민(동력6과) 조부

11.29 송웅창(동력1과) 조모
김종업(유회1과) 부친

12.01 윤종호(Polymer&Intermediate
운영팀) 빙부

12.02 이상엽(탈황3과) 외조모

12.05 김종명(자재관리과) 빙부

독자마당

사내보 <S-OIL>은 사우 여러분의 참여와 관심으로 만들어집니다.
 다양한 지면에 참여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문의: sabo@s-oil.com



<달리는 희망주유소> 남원새마을금고주유소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고 지역사회에도 환원하는
 선한 영향력이 감동적입니다. 전정배(Alkylaton1과)



<가족 추억공작소> 정세용 사우(장치2과) 가족
 아이들과 부모가 함께할 수 있는 자리를
 회사가 마련해주는 모습에 뿌듯합니다.
 고동희(동산주유소.전북 익산시 목천로)



<달콤한 퇴근길> 난 가꾸기
 각기 다른 취미생활을 통해 미처 알지 못한 정보를
 공유하니 좋습니다. 송유호(품질관리팀)



<함께하는 풍경> 체육의 날 행사
 모두가 함께하는 체육의 날은 정말 뜻깊고,
 재미있고, 보람찬 하루입니다. 김대기(유항1과)



<마을숲을 걷다> 남원 서어나무숲 숲순
 마을 가까이에 있는 숲에 관해 정보를 습득할 수
 있었습니다. 정경조(고객.울산시 중구 평동3길)



<이달의 활력평가> 소방
 그 시기에 맞는 탐구영역의 퀴즈로 배울 것이 많습니다.
 강재성(좋은기름주유소.서울시 강북구 덕릉로)



<캔버스 연구실> 미켈란젤로 다 카라바조
'세레 요한의 머리를 받는 살로메'
 바로크 시대 회화를 다뤄 흥미롭게 읽어보고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차필근(VDU과)



<주요 경영활동> 2019 광고캠페인
 유튜브로 자주 보던 광고를 기사로 다뤄
 흥미로웠습니다. 신태환(에버랜드주유소.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Quiz 01 다른 그림 찾기

두 사진 가운데 서로 다른 곳은 어디일까요? (총 다섯 군데)



Quiz 02 우리말 바로 쓰기

일상에서 사용하는 외래어나 잘못된 우리말 표현을 올바르게 써주세요.

01

연말 감사 인사를

① 문자메시지 ② 문자메세지로 전해야겠군.

02

언제쯤이면 돈을

① 한 응큼 ② 한 읊큼 쥐어볼까.

11월호 퀴즈 정답

Quiz 01 다른 그림 찾기



지난호
퀴즈 당첨자

블루투스피커

김영환(HYC과) • 조민구(유황1과) •
최성규(아로마틱생산1과) • 김승현(환경운영과)

휴대폰보조배터리

최재무(유황1과) • 손의권(윤활생산2과) •
조승운(Alkylation2과) • 양재원(해상출하과)

Quiz 02 우리말 바로 쓰기

01 이 자리를 ①빌어 ②빌려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 이 자리를 '빌려'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 '빌리다'가 기본형인 '빌려'는 어떤 일을 하기 위해 기회나 상황을 이용할 때 사용합니다. '빌어'는 '빌다'가 기본형으로 소원을 빌거나 용서를 구하는 상황에서 씁니다.

02 내가 응원한 팀이 3위에 ①올랐어. ②등극했어.
→ 내가 응원한 팀이 3위에 '올랐어.'

☞ 등극은 오를(登) 다할(極)자로 이뤄진 단어로 어떤 분야에서 가장 높은 자리나 지위에 올랐을 때 사용합니다.



올해 사보 표지는 스마트워크(Smart Work) 제도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에스-오일 리더의 일하는 방식(S-OIL leaders' way of working) 캠페인의
세부 항목들을 한 컷 그림으로 구성해 채웠습니다.